

월간 충현



1988

11.12

새 출발

사43 : 14-21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신년 정초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제관식을 행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며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된 인간이 행해야 할 일들이 선포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년 첫날은 은총의 날이며 동시에 새 출발을 하는 역사의 카이로스가 되기도 한 날로 알려져 왔습니다.

일찌기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새 출발을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서술하였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사 43 : 18-21). 다시 말해서 새 출발의 논리는 지나간 과거는 묻어 버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구원함을 받았으나 광야 40년 동안의 쓰라린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도 기억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는 말씀은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커다란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흔히 지난 일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잘 것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속의 유토피아처럼 승화시키는 이들까지도 있습니다. 5000년 전 단군 할아버지 시대부터 사용해 오던 호미와

지게가 그리고 초가지붕과 흙벽돌집이 근대화의 뿔머소리와 함께 무너져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농업의 공업화가 이루어져 논밭에 기계가 굴러가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어느 노인이 나약한 노스탈자에 사로 잡혀 근대화를 저주하는 글을 신문에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같은 노스탈자는 미래를 향한 새 출발을 하려는 소망의 삶에 해로우면 해로웠지 유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땅 바벨론에 살면서도 이미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연모하면서 지난날 예루살렘이 누렸던 영화에 연연하며 현재의 조건을 타개할 야망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가버린 예루살렘의 영화에 허황한 긍지를 고집하며 그들은 새천지 바벨론 사람들과 섞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재촉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고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조그마한 성공과 자랑을 되씹으면서 삶의 전진보다는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과거의 성공과 자랑을 한꺼번에 묻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약한 노스탈자는 새 출발의 결단을 마비시키는 독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난 날의 실패와 좌절을 함께 묻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 겪은 수치와 절망 때문에 실망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도성



의 거민은 학살을 당하고 부녀자는 능욕을 당하며 거리는 황폐하고 나라의 임금은 두 눈이 뿔혀 쇠사슬에 묶이고 모든 귀족과 지도자들은 멀리 이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들은 이국의 포로생활에서 날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며 바벨론을 원망했습니다. 저들이 이처럼 남을 저주하고 또한 자학에 빠져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외치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보리라' 고 했습니다.

지난날의 수치와 좌절에 집착하여 무기력한 실의에 빠져 있지만 말고 지나간 모든 실패와 허물을 과거와 함께 묻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새 출발을 하려는 신년 첫날에 우리들은 지난날의 영화나 자랑에 매어달릴 것도 아니고 지난날의 슬한 허물과 실패에 머물러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나간 어제까지의 생활이 영광스러웠건 욕된 것이었건 간에 우리는 모든 일을 과거사로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한 진진만을 재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의 진진하는 생애에 있어서 과거로부터 연유된 현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의 조건은 우리들 삶에 있어서 어떤 결단과 행동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기점은 현재의 조건보다도 미래의 비전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되고 못된 것이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현재의 좋고 나쁜 조건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전개시켜주는 새출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소망의 비전이 현재의 행동

을 결단하게 하는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이 없는 곳에는 다시말해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현재의 적극적인 삶 즉 진진에의 행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요 믿음을 가진 자는 미래 진진의 행동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조건은 항상 미래의 소망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 표준에 의해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재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를 결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의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해 동안 복되고 보람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새해의 다짐이 또다시 여러번 반복될 수 있는 많은 기회중의 하나라고 생각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생 일대의 새출발을 내딛는 유일한 시작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한시점, 카이로스는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에포크 즉 보람의 신기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충현의 가족 여러분 위에와 우리 민족 전체 위에 이 한해 동안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사 이 중 윤

헌당을 축하드리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뒷 줄 김영구 김성식 한용관 김광석 윤용규 김준태 김익경
 가운데줄 김경성 이조웅 김정순 김동열 최순복 이세열
 이두란 송태근 이종운 이양우 구명신 김학진
 정연희 마일수 임태주 김성운 유순화 김해규
 정복인 김창근 이원길
 앞 줄 최명자 김연이 장영자 장혜순 김정자 현정남

월간 충현

1972년 4월30일 창간 제16권 5호 통권 제148호

3 대목표

천국일군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자 구제

성탄 메시지 / 예수님의 탄생.....	김창인...6
교역자 세미나 / 존경받는 목회자상.....	임동선...8
교회사 순례 / 종교개혁 시대.....	김연이...10
충현칼럼 / 사랑의 실천.....	윤용규...12
특수 교회 학교 / 사랑부.....	이종석...13
에바다부.....	임태주...14
장애아동 조기교실.....	한용관...15
장애자 선교 / 한국 밀알선교단 이야기.....	밀알선교단...16
특별강좌 / 농아자에 대한 이해와 지도.....	강주혜...18
위임목사님과 대화 / 가치관과 기독교문화 창출.....	편집실...20
특별좌담회 / 임직자의 형적 재무장 다짐.....	편집실...24
소감문 / 이 복음을 위하여.....	이영열...28
시 / 여로.....	신동기...29
성전감사성회 / 개척자의 정신.....	임동선...30
기도 /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권정미, 채송아...32
특집 / 이 기쁨, 이 감격, 오직 하나님께.....	편집실...33
시 / 하나님의 진.....	김윤섭...41
충현교회 평면도.....	건축위원회...42
방송대담 / 파출부로 실금받아.....	편집실...46
은퇴탐방 / 이창업 장로, 이두관 전도사.....	손경수...50
경쟁 취재 / 각계신문 현장에 관심 표명.....	편집실...53
신앙간증 / 남은 여생 몸바쳐.....	김선미...54
성도의 건강관리 / 치아 건강.....	엄필성...56
용어해설 / 성화.....	이양우...57
추천도서 / 신앙개론.....	한용관...57
교회소식.....	편집실...58
위원회별 임원 명단.....	편집실...62
교우동정.....	편집실...65
교회행사 • 편집후기.....	편집실...68
화 보.....	편집실...69



□ 표지 사진설명 □

세계에서 제일 큰 돌 성전!
비전과 감사와 책임이 용어러진
집!

눈먼 자가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
며 방어리가 말하며 저는 자가 사슴
처럼 뛰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열방
이 멀며 주께로 돌아오고 섬들이 일
어나 찬양하는 역사가 이곳에 있으
리라.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2 장 8 - 20절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 : 11)



김 창 인
(원로목사)

사람마다 생일이 있고 그 날을 기억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생일을 몰라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나라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8·15광복절은 분명히 큰 명절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에게 는 그 날이 통곡의 날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생일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도 어렵고 한 나라의 명절이 다른 나라의 명절이 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개인에게나 나라에게만 명절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명절입니다. 또 일시적인 명절이 아니고 세월이 감에 따라 성탄절은 점점 커지는 명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탄절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땅 위에서만이 아니고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명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성탄절이 큰 명절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고마우신 분, 가장

무서운 분이시기에 성탄절이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 땅위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들이 당하는 문제, 개인도 단체도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네가지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 첫째로, 예수님은 근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근심을 만나면 '아이구' 하고 한숨을 지으며 '아무개 때문에' 라며 남을 원망하고 '이놈의 세상 될대로 되라' 지주하고 타락하기 쉬운 것이 근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 진해 주신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자기의 못난 것을 알게 되어 죄를 회개하면 마음에 응답이 오고 기쁨이 솟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밝아져 영의 눈이 뜨이게 되고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해결되고 생각도 못한 복이 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 둘째로, 예수님은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무서운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머리를 가우뚱하며 “조직검사를 해야겠는데요” 하면 ‘아이구나, 아이구, 난 죽었다’ 하고 육신이 죽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죽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이 병이 났어’ 그러면서 남까지 저주하며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나이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병이 왜 났나? 내 욕심이 지나쳐 교만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벌을 받았구나’ 범한 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지옥가지 않아야 하겠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병을 고쳐달라는 것보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질병이 해결됩니다.

• 세째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의인이요 가장 똑똑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교훈을 듣고 사랑의 빛이 비칠 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 회개를 시작합니다. 과거에 사람 노릇하지 못한 것이 분하여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죄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그러면 죄짐을 벗어버리는 시원함이 생깁니다. 죄악의 습관이 하나 둘 뿔뿔히 나가고 바로 사는 지혜와 힘이 넘칩니다.

• 네째로, 예수님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죽음은 무섭고 슬프고 외로우니 세상 사람들은 겁을 내고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자도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서 무덤문이 열리기 전에 그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죽음입니다.

누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줘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마운 분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분이십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3 년 반을 모시면서 기사를

행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은 30에 예수님을 죽음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잘 살아 보지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여 나무에 목을 매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아들에 목을 돌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교회에 괴로움을 주면 예수님의 심판이 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한 해수가 240 년이 넘는 긴 세월이었으나 한 사람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열 사람, 백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상합니다.

전등불은 사람이 발명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끄면 캄캄하게 꺼지지만 태양불은 하나님이 스위치를 넣었기 때문에 인간이 캄캄하게 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양의 김일성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 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끝까지 원수가 되었던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 갑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실 무서운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주에서 가장 큰 명절인데 이 명절을 바로 지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켜야 합니다.

•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임금님으로 순종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할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켜야 합니다.

• 사람에게 진도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똑바로 지키는 자는 마음과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이 많은 나라에 천국이 임하니 한국이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과 가정이 천국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존경받는 목회자상

강사 : 임동선 목사

위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후 교역자들의 의식의 개혁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월요 휴무제를 폐지하고 여러가지 주제의 세미나를 가지던 중 12월19일에는 성전 헌당 감사 성회의 강사로 오신 임동선 목사님을 모시고 '존경받는 목회자상'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가졌다. 임목사님은 구약의 모세를(히11:24-26) 표본으로 들면서 몇가지 목회자상을 제시하였다.

1. 통찰력있는 지도자

모세는 멀리 바라 보았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보았다(신18:18). 1400년 앞을 내다 본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와서 상 주실 것을 바라 보았기 때문이다. 수천년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졌던 것이다.

눈에는 세가지 눈이 있는데 육안, 지안, 영안이다. 장님에게는 육안이 없고 공부할 못한 사람은 지성의 눈인

지안이 없다. 그러나 영안을 갖지 못해 공부를 많이 했으나 신령한 세계를 못보는 자도 있다.

지도자는 영안이 열려야 멀리 바라보는 통찰력을 얻는다. 통찰력 있는 지도자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1) 인간상

인간을 보는 눈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고대는 관념론적 인간관이었고 중세는 신학적 인간관, 근세는 수학적 인간관, 현대는 동(생)물학적 인간관이다. 현실 세계는 윤리 도덕적으로 소돔 고모라처럼 극도로 타락해 가고 있다. 병든 문명이요 대중이며 감관적 향락주의에 사로잡히고 있다.

2) 현실 사회

현실 사회를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르다. 많은 사상가들은 현실사회를 공기 탁한 사회라 하고, 정치가는 화약고라 하고, 과학자는 12시1분전이라 하며 심경은 말세라 한다.

3) 역사의 미래

이 세상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인간역사는 끝난다. 아놀드 토인비는 “마지막에는 참된 종교만 남는다”고 했다.

지도자는 멀리 내다 보아야 한다. 공간만 보지 말고, 시간을 보아야 하며 지식만 보지 말고 직관을, 물질을 보는 눈에서 생명을, 과학을 보는 눈에서 형이상적 세계까지 보아야 한다.

2. 권위있는 지도자

1) 지적 권위: 지적권위가 없으면 젊은이들이나 현대인을 인도하지 못한다. 수도가 저수지 이상 올라 갈 수 없듯이 국민정신 이상의 국가건설은 못한다. 모세는 위대한 석학 밑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정치, 군사, 경제, 언어, 천문, 지질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좋은 환경, 넉넉한 시간, 풍부한 물질로 많은 문화에 접하면서 모세 5경을 기록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했다.

바벨론 문화, 회람 문화, 애굽 문화는 시간과 물질 때문에 꽃을 피웠다.

2) 인격적 권위: 소크라테스는 덕을 가졌으므로 예수님보다 위대하지는 못하나 이름이 남아 있다. 지식보다 귀한 것이 덕이다. 사랑, 겸손, 덕이 있으면 목회에 성공한다.

모세는 풍부한 인간미, 감정과 정서가 풍부했다.

겸손은 인격의 기초가 된다. 웨슬레는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겸손이라 했다. 지, 정, 의가 조화되어 웃을 줄도 알고 물 줄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 오시고 애굽으로 피난하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발가벗기우시고 창에 찔리우시므로 겸손의 모본이 되셨다. 모세는 덕이 깊으므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3) 영적 권위: 지, 정, 의의 조화위에 신앙과 거룩이 첨가되어야 한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출34:30). 이것을 통해 그는 영권을

얻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갖고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갔다(출4:20). 지식보다 귀한 것이 덕이요 덕보다 귀한 것이 영력이다. 지식은 책을 통해 얻고 인격은 고생을 통해 얻으며 영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는다.

3. 열과 사랑, 신념을 가진 지도자

1) 열

열은 사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 주체의식을 말한다. 바울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다(행7:23, 40세에 사상이 발하여……).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간 것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고 때문이었다. 인더라 간디가 영국 법대를 졸업하고 인도에 와서 영국인과 손을 잡았으면 최고의 영광을 누렸을 것이나 최고의 고난을 받았다. 이는 민족혼 때문이었다. 인도의 해방을 위해 유치장에서 산 시간이 집에서 산 시간보다 더 많았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열을 지닌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았다.

2) 사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원했다(출32:32). 징기스칸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전사들과 동고동락한 사랑에 있었다. 나폴레옹은 늙은 노병이 피곤해 보초를 서는 도중 잠이 든 것을 순찰 중에 발견했으나 총살형에 처하지 않고 그 노병의 총을 가만히 빼서 보초를 대신 썼다. 그 소문이 퍼지자 모든 병사가 이런 지휘자에게는 생명까지 바치겠다며 충성했다.

3) 신념

모세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와 구원을 보라”했다(출14:13).

지도자는 신중성, 침착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침착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모세가 이런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애굽 궁중의 40년의 세월과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고생의 세월과 애굽에서의 열가지 재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시대

김 연 이
(전도사 · 출판부지도)

1. 여명기

15세기 북부 유럽은 막막하고 불투명한 세계였다. 세계를 다스리는 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의 창조주 신이었다. 인생은 아담과 이브가 상실한 천국에 대한 인간의 죄값으로 종교적으로 해석되고 있었으므로 지상의 세계는 인간에 대한 시련의 마당이었고 200년 전인 중세의 절정기를 고비로 하여 유럽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다.

마틴 루터가 태어난 악령이 날뛰는 침침한 중세 세계는 때마침 전환기에 처해 있었다. 중세 후기가 바야흐로 종언을 고하려는 으름 빛 속에서 새 정신이 싹터 오르고 있었다. 생활 상태는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고무한 미신이나 공포에 반항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2. 개혁자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복잡한 성격을 타고 난 사람이었다. 쾌활, 명랑하여 노래나 교제를 좋아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고집스럽고 명상적이며 신의 노여움을 두려워 하여 내성(內省)과 자책으로 자기를 들볶기도 하였다.

1505년, 아직 22세도 안된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의 특징인 근면함과 열의를 갖고 자기의 책무를 다했다. 극단적인 단식을 하기도 하고 밤중까지 기도를 하는 등 몇가지 고행도 하였다. 자기 죄를 정기적으로 상세히 고백하고 여윌대로 여위어서 고해 사제를 당혹케 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도 그는 절실히 바라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 재직시 그는 아직 교회와 기독교 세계를 뒤흔드는 대변동을 일으킬 생각은 털끝만 큼도 없었으나 대학의 선배 교수들은 “이 수도사는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 내어 전 로마 교회를 개혁하려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1년 후에 루터는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능력에 따라 복음의 진실을 옹호할’ 허가를 부여받았다. 그는 “교회에 의해 부정된 것, 경건한 귀를 손상시키는 일, 즉 가치없는 이단의 교의는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선포했다.

도처에 루터가 염려하고 있던 어두운 그늘이 있었다. 비텐베르크의 사제로서 교구 사람들의 고해를 듣고 그들의 죄의식이 얼마나 약하며 벌을 피하기에 얼마나 열심인가를 알고 루터는 낙심했다. 점차 구원에 대한 그의 탐구심과 개혁에 관한 토론이 그의 심중에서 혼연 일체가 되어 혁명의목이 싹텄다.

루터를 괴롭히던 번뇌는 어느날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대학 강의를 준비하며 성경과 씨름하던 루터는 갈망하던 회답의 열쇠를 로마서 속에서 발견하였다. 그것은 단 한마디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그를 그때까지 절망으로 내몰고 있던 ‘정의’라든가 ‘의’를 뜻하는 말, 즉 ‘유스티티아 (justitia)’ 그 자체가 해결제로 인도하는 열쇠였다.

“마침내 신은 나를 어여뵈여 여기셨다. 신의 ‘의’란 신의 은혜이며 은혜로 하여 올바른 사람은 길이 산다. 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의’라는 것은 징벌을 내린다는 섭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신의 자비에 기초하고 있다.”

루터가 삶에 절망했던 것은 자기는 신의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신은 줄 뿐이며 팔든가 사지를 앓는다. 따라서 신의 은총은 돈으로는 얻을 수 없고 구원받는 자는 오직 신의 매개자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 선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에 빛이 비치었다.

루터는 더욱 연구를 함에따라 다른 말이 그의 대담한 신념을 받쳐 주게 되었다. 그것은 메타노이아(metanoia)라는 그리스어였다. 참회(Penitence)의 개념에는 죄악, 범죄, 벌 등 모든 강박관념이 얹혀 있으나 ‘메타노이아’를 정확히 번역하면 ‘회심’이 된다. 영혼의 회생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을 믿음으로

써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루터 신학의 출발점이었다.

3. 종교개혁

루터 시대의 교회는 전쟁도 하고 조약도 체결하며 세금도 징수하는 입법(종교회), 사법(교회법), 행정(재무)을 갖춘 일종의 국가였다.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았으나 가장 많은 불만이 쏠린 것은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였다.

교회의 팬창은 수입원으로 사면장이 있었다. 후에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것이기도 하다. 사면장은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교회에 죄의 값으로 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죄에 대한 제형은 돈의 지불 즉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독일 법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돈과 사면이 얽힘으로써 악용되기에 이르렀다. 원래 사면장은 특별한 경우에만 나온 것이었는데 루터 시대에 와서는 누구에게나 내주게 되어 버렸고 민중은 사면을 구원의 보증이라 믿고 있었다.

루터는 급기야 '의'와 '회개'의 개념을 문제로 삼음으로써 성자 숭배에 대하여, 사면장 판매에 대하여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태평의 흥행사 뺨치는 사면장 세일즈 행위에 분개하여 일어선 루터는 사면장 판매에 대한 견해를 95개의 논제로 정리하여 프리드리히의 거성 안에 있는 교회당의 북쪽 문 위의 게시판에 붙였다. 때는 1517년 10월 31일이었다.

루터의 계속적인 의문의 화살에 신학자간의 학구적인 논쟁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민중도 놀라고 수천 명의 쌓였던 울분이 루터의 말에 반응을 나타내었다. 수 개월 사이에 전 유럽에 루터의 공개장이 퍼져 나갔다.

교회와 국가는 기독교시대 전체를 통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양자는 신의 뜻으로 정해진 정신 세계와 속계(俗界)의 양팔로 간주되어 왔다. 교회가 의무를 게을리 할 때는 국가가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루터의 시사(示唆, 1520년)는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이 사상이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다.

그해 10월 루터는 한층 더 논쟁적인 입장을 밀고 나갔다. 신약성경을 읽고 얻은 판단에 입각하여 거기에 명기되지 않은 다섯가지 성사(聖事)를 버리고 두가지 성사(세례와 성찬)만 남겼다. 이것은 곧 교회의 권한

공격으로서의 발전이었다.

11월에 또 새로운 공격을 교회에 가하였다. "크리스찬의 자유" 속에서 "인간은 신의 말씀에만 얽매이며 신의 말씀은 성경이다. 신자는 모두 사제이다"만인 제사장설을 선언했다.

국회가 보름스에서 개최되고 루터는 소환되었으며 한달 후 황제는 루터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칙령을 공포했다.

보름스의 칙령도(the Edict of Worms) 루터의 은둔 생활도 이미 전 독일에 소용돌이 치는 조류를 막을 수는 없었다. 종교개혁의 홍수는 이미 독을 넘어 범람하고 있었다.

제후 모두가 이 종교 개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으나 중세 종교의 범세계적인 성격은 깨어졌고 그후 두번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성에 은거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루터의 이념에 새로운 이념을 담아 결국 기독교국은 일반적으로 개혁과 교회(the Reformed Church)로 알려진 여러 종파로 분열되었다.

개혁 운동에는 술한 사람들이 공헌했는데 종교개혁의 예언자 루터, 실천자 스위스인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입법자 프랑스인 장 칼빈(Jean Calvin), 개혁 보급의 사도 스코틀랜드인 존 녹스(John Knox)가 그 주역이었다.

4. 결 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공포심과 사행심을 조장하며 이 공포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돈으로 은혜를 살려는 년센스를 낳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신지라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의 시의적절한 출현을 허락하셨으니 전 유럽을 아니 전 세계를 무지와 암흑으로부터 탈출케 하는 대 출애굽의 역사를 또 한번 일으키신 것이다.

종교개혁의 중심교훈인 솔라 그라티아(sola gratia, 오직 은혜), 솔라 피데(sola fide,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 오직 성경)는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을 철회하고 교회 내의 제반 사항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정비하게 한다.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내적인 탐구를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 시대의 산통(産痛)이 반영되었다면 우리 모두의 내적인 탐구를 통해 얼마나 수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겠는가.

사랑의 실천

윤 용 규

(목사 · 13교구 담당)

「율법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한 율법사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타이르셨습니다.

한 제사장이 길로 내려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은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잘못하다가는 저 사람꼴이 되겠구나 하는 자기 사랑만을 생각한 나머지 이웃을 사랑할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의 실천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 보다도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없는 생이란 살았다 할 것이 못되고 사랑에 거적이 있다면 그것은 미움만도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의 상실, 사랑의 배신, 이런 것들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진실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 사랑의 진실이 갈수록 아쉬워지고 있는 차제에 우리 충현교회는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세 기둥을 굳게 세우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런 중에도 특별히 ‘빈약자 구제’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과 선행일치의 모본이 되려고 힘차게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기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장애자를 돕기 위한 자선 바자회를 열어 기쁨으로 동참하므로 점자 복사기를 주문하였으며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정신 박약자를 위한 사랑부와 청각 장애자를 위한 에바다부를 신설하고 개교 하였으며 강남구 거리 미화부원들을 초청하여 위로하고 서초동 꽃 마을 화재시에 이새민들에게는 담요 600장을 비롯하여 의류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그들의 슬픈 마음을 달래 주기도 하였고 방글라데시 홍수 난민들에게는 의약품과 치과 기재를 보내어서 우리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하는 중에 사랑의 실천은 확실히 즐거운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못 받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으며 또한 사랑을 못 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원예가의 수필을 보니 풀잎도 사랑을 알아 사랑의 마음으로 가꾸면 예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화초도 사랑을 알고 동물도 사랑을 압니다. 하물며 사랑에 의해서 살고 사랑 받기를 원하고 지금도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어찌 사랑의 손길을 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연말을 당하여 빈약자에게 구제를! 사랑의 실천을 하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 랑 부



이 종 석
(창로·사랑부 부장)

교회학교 사랑부는 충현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은총속에 1988년 9월 10일 갈릴리홀에서 학생 17명 교사 27명과 다수의 성도님이 참석하여 개교 기념예배를 드림으로 그 효시를 이루었다. 개교 기념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사랑부 교회학교는 매주일 소석관 109호실에서 10시 30분부터 교사 모임이 시작되고, 11시 부터는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제2부 순서로 예수님의 행적을 알기 위한 그림도 그리고 공작놀이도 한 다음에 율동과 체조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할적에는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한다. 인간의 영혼은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은 것이다. 정신이 조금 미숙한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교육하여 이들이 지상에 살면서도 영적인 면에서 건강인이나 조금도 다를바 없게 양육함으로 훗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는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물론 학교에는 학생이 있어야 하지만 선생님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이들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리라는 확신을 갖는다. 지체가 부자유한 데다 언어도 소통이 되지 않으며 무례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하는데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의 뜻을 다 받아주면서 정성껏 그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의 웃거리를 여미게 된다. 사랑부학교가 변창하고 더 발

전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도님들의 배려와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요망된다. 이들을 보는 눈이 일반 건강인과 색다르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 싶다. 이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 나무래주고, 잘못을 하면 꾸짖어 주는 것이 이들의 독립심을 길러주고 참 사람으로 살게하는 데 도움과 격려가 되리라 생각한다. 정신이 조금 미숙하다고 해서 그들을 너무 과보호해서는 안되고 건강한 아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돌봐줘야 할 것이다.

이 사랑부 주일학교가 더 번창해지면서 인근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이 교회학교에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상에서도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훗날 하나님나라에 갈적에 웃는 낯으로 볼 수 있도록 이들 학생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사랑부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에바다부

임 태 주
(전도사·에바다부 지도)

이종운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선교, 구제의 세기둥의 취지에 따라 6월 5일부터 청각 장애자를 위한 수화 통역예배(3부 예배시 V.T.R)를 드리고 충현설립 3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0월 8일, 교회학교 에바다부가 개교 예배를 드렸다(교사 18명, 학생 7명).

에바다부의 교육 목적은 청각장애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며 천국 일꾼으로 살도록 가르치며 예배와 선교와 봉사를 목적으로 뭉쳐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를 알아 교회를 위해 돕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아동부는 1부 예배시 수화통역과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 설교하고 분반 공부집에도 교사들이 수화, 구화 혹은 글로써 말씀을 가르치며 특별시간에는 수화찬송 부르기, 율동, 공작, 그림 동화, 반별



찬송 부르기,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외우기, 레크레이션, 월 1회 V.T.R 상영으로 성화 및 성경동화 비디오를 보여 준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흥미있는 학습변화를 준다.
성인부는 3부 예배(수화통역)를 마친 후 성경 공부집회에 참석하여 새신자부 교재로 신앙의 기초 문제를 다루고 2부 순서로 복음송, 수화찬송 부르기,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외우기, 성경퀴즈 및 특강을 통하여 신앙의 재무장을 하게 하며 성도들간의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아동부의 헌신적인 교사들의 수고는 주간에는 학생집을 방문하고 구화학교에 가서 전도하였다가 주일 아침 7시에 봉고를 타고 나가 방학동→석계→미아방면으로 돌아 아이들을 데려온다. 다른 봉고 한대는 구로동→삼도동(삼성농아원)으로 돌아 온다.

봉고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는 택시로 데려오기도 한다.

교사 수급을 위해 수화 교육이 초급반(140명, 화, 금) 중급반(25명, 월, 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급반(수, 토)을 곧 개강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교재 개발, 아동 수화 교육, 취업 알선 및 상담, 잠재된 가능성 개발, 전국역 전도 등이다.

장애 아동 조기 교실

한 용 관

(전도사 · 조기교실 지도)

소석관 107호실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 짙은 눈길을 멈추곤 한다. 이곳이 바로 장애아동 조기 교실이다.

장애아동 조기교실은 이종운 목사님이 이사장이신 밀알선교회의 부속 기관으로서 1984년 3월에 방배동 모 건물의 한층을 임대해서 어렵게 4년을 꾸려나갔다. 그러다가 올해 여름방학을 끝내면서 본 교회로 이전을 하였다.

장애아동 조기교실의 설립 목적은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장애아동과 불신의 부모에게 전하고, 둘째로는 장애아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어려서부터 개발하는 것이다.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인지교육,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선별치려 훈련, 근육 운동, 사회성 지도, 언어치료, 음악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현재 학생들의 숫자는 39명인데 그중 8명은 개별지도도를 하고 있다. 이들의 나이는 0세-7세까지인데, 0-3세 프로그램과 4-7세의 두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화여자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학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동귀원장 이하 8명의 교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중이시다. 수업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오전 10:00~12:30까지며, 화요일과 금요일은 중식지도를 하므로 조금 늦게 끝이 난다. 이들의 통학은 12인승 미니버스 2대를 이용하는데 그중 1대는 본 교회에서 기증한 것이다.

이 학생들의 수업료는 월 12만원으로 다소 바쁜 편인데,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는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장학금으로 밀알선교단에서 연(年)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트하트 재단에서 월(月)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장학금이 부족한 형편이다. 전액 장학생 2명과 일부 면제 장학생이 3명인데, 이들 외에도 많은 장애아동을 위한 장학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조기교실의 시설로는 아동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개별 지도실이 8개 준비되었고 그룹 지도실도 2개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학생이 수업하며 활동하는 넓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일반 유치원이나 타기관에서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놀이기구 외에도 치료 목적의 여러 도구도 골고루 갖춰져 있다. 또한 아동들과 함께 오는 학부모를 위해서 본 교회에서는 장소를 제공하여서 쉬시기도 하고, 밀알선교회 주최로 간간이 특강도 하기에 학부모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된다.

조기교실의 아동들은 열띤 교육의 효과로 점차로 그들의 장애를 극복해가고 있다. 말을 한마디도 못하던 친구가 “엄마”, “아빠” 등의 단어를 익혀가고, 기어다니기조차 힘들던 친구가 두발로 마루바닥을 구르면서 뽕뽕뽕 뛰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사람의 얼굴을 한자로 피했는데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희생의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머무를 수 없는 것이 교육 현장이어서, 국내에선 최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종합 조기 시설을 만들어서 특수교육과 함께 의료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 위임목사님의 계획이다.

천국일군 양성, 만민에게 전도하는 충현교회가 또한 탄약한 자에게 구제하는 가운데 장애자를 위한 힘찬 첫 걸음을 옮겨 놓았으니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그들의 행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충현 교회로 이사 온 한국 밀알선교단 이야기

입동이 지나자마자 영하의 날씨가 들이닥치는 것을 보면서 소외된 채 살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좀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소외된 사람들은 더욱 더 깊은 소외를 느끼며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 장애자 올림픽이 있었고 또한 장애자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지만 200만에 이르는 이 땅의 장애인 가운데 절대 다수의 장애인들이 아직도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밀알 선교단은 절대 다수의 장애인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서조차 소외되어 있음을 깊이 주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물질 양면으로 도와 주고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장애인을 바로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 1979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시작은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관심갖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재정적인 능력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친히 복음을 전하고 봉사의 일을 즐겨 하셨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확장되어 현재는 유급 직원 21명과 천 명이 넘는 단원 및 자원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되어 가던중 지난 9월 충현교회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충현교회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일반

건물을 임대해 사용을 했었는데 매년 올라가는 건물임대료와 계속적인 성장에 따른 더욱 넓은 공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고민을 늘 안고 있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점점 커져가고 있을 무렵 장애자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종윤 목사님이 밀알 선교단 1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충현 성도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 은혜 넘치는 충현의 드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되는 사람만해도 2만여명에 이르고 산업 재해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1년에 2만 여명에 이르는 추세입니다.

밀알 선교단은 이러한 실상을 더욱 깊이 주목하면서, 예수 사랑을 가지고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밀알 선교단의 장애자 선교 사역에 충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밀알 선교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합니다.

1. 현재 하고 있는 일

① 시설 장애인 진도-매주 토요일 오후에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다(시설-맹인 대린원, 서울 맹학교, 인천 농화학교, 은광원, 밀알 기업사, 다니엘 정



박아학교, 부천 해림원, 농아 자활원, 신평 애양원, 부산 맹학교, 전남 맹학교 외 다수).

② 장애인 진도-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신평 10동 지역에 재가 장애인 선교부 사무실을 개설하고 진도, 봉사, 구제등의 일을 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진도하면서 장애인 가족들에게도 진도할 수 있는 진도의 황금어장이다.

③ 장애아동 조기교실 운영-0~7세의 자폐아, 정신지체아, 정서장애아를 대상으로 9명의 교사가 35명의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다.

④ 점역봉사-맹인들의 책을 점자로 번역해 주는 일이며 점역을 위한 자원 봉사자가 부족한 형편이다.

⑤ 녹음 봉사-맹인들에게 책을 녹음해 주는 일인데 맹인 학생들과 신학생 및 교역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맹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녹음도서 출판, 맹인 목회자들을 위한 월간 맹인목회자의 벗(목회자료) 제공을 위한 녹음 월간지 등을 발행하고 있다.

⑥ 노력 봉사-길 안내, 심부름, 민원 처리, 편지 대필 등 장애인들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고 있다.

⑦ 상담-장애인들의 직업, 교육, 치료, 결혼, 신앙 문제 등을 상담하고 있다.

⑧ 결연-장애인을 돕고 싶어 하는 개인이나 교회 및 단체에게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개인을 소개하고 있다.

⑨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점자 및 수화, 특수교육 등의 강화를 년 4회 개설하여 자원 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⑩ 월간 밀알보 발간-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을 사회와 교회에 바로 알리기 위해 매 주 발간하고 있다. (11월 현재 지령 105호)

⑪ 특강 및 수화 중창단 운영-장애인 선교와 계몽을 위해 교회와 단체 등에서 특강을 인도하고 찬양하고 있다.

⑫ 화요모임-단원들에게 장애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신앙 훈련 및 특수 교육을 실시하는 모임으로 장애인과 정상인이 만나서 교제하는 사랑의 광장이기도 하다(매 주 화요일 7시).

⑬ 사랑의 캠프-장애인을 위한 여름 캠프로서 정상인도 함께하는 신앙 수련의 축제이다.

⑭ 말알의 밤-장애인을 사회와 교회에 바로 알리고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의 행사인데 올해는 11월 8일 류관순 기념관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⑮ 장애아동 주일학교 협력-지역 교회로 하여금 장애아동을 위한 주일학교를 개설토록 계몽, 지원, 협력하고 있다.

2. 앞으로의 계획

① 심신 장애인 선교센터 건립

장애인에게 나갈 특수 선교요원 훈련, 장애인의 재판 문제 연구

② 장애인 직업대학 설립

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직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의 개발과 교육

③ 국제연합기구 설립

세계 장애인의 복음화와 인권 보호

3. 참여방법

재능, 시간, 행사시 차량 후원 및 재정후원 등으로 참여할수 있습니다.

(문의와 방문을 환영합니다.)

☎ 555-7558, 567-4070, 소석관 1층
한국말알선교단.

농아자에 대한 이해와 지도

강 주 해

(목사·영락 농아인 교회)

1. 농아인은 누구인가?

농아인은 외형상 일반인과 다름 없어 보인다. 사지도 멀쩡하고 행동 양식에 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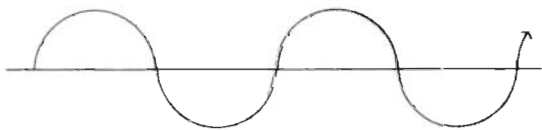
농아인은 귀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귀가 먹었다고 소리에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아인이라도 소리의 반응을 보이는 수가 많다.

맥케이 버논과 유진 먼델 박사는 '농인'을 이렇게 정의했다. "농인이란 보청기를 사용하든 안하든 대개의 상황에서 통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청력이 심하게 손실된 사람들이다."

농인이라고 반드시 병어리일 필요는 없다. 귀먹은 자도 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인들이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음성을 의미있게 들을 청력이 상실된 까닭에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발음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모든 농인들은 자연히 말을 잘 못하는 병어리 아닌 병어리가 되는 것이다.

2. 소리란?

소리는 일종의 진동이다. 소리를 내면 그림과 같이 위, 아래로 포물선을 그리며 사방으로 진진한다. 이를 음파라고 한다.



• 음파가 1 초에 1 개의 싸이클(주파)을 이루면 1Herz라 한다. 빈도가 많을수록 소리는 높고 빈도가 적을수록 소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진폭은 파고와 파저의 거리로 음파의 압력의 크기를 뜻한다. 진폭은 음의 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음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를 dB라고 한다.

데시벨의 수치가 많을수록 소리는 강하고 시끄럽고,

적을수록 약하고 부드럽다. 이 dB수치는 청력 손실에 비례한다. dB가 많을수록 청력 손실치가 높아진다.

10dB - 20dB : 청력이 정상으로 세미한 음을 감지할 수 있음.

20dB - 40dB : 속삭이는 소리를 감지

40dB - 60dB : 보통의 회화에서 소리를 감지

60dB - 80dB : 큰 소리로 하는 회화, 진공소제기의 소음이 이 수준에 속한다. 보통 난청자들이 이 수준에 속한다.

80dB - 110dB : 자동차 트럭의 소음, 농으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다.

110dB 이상 : 비행기, 천동, 싸이렌 등 귀에 고통을 주는 강한 소리.

청력이 정상인 사람들은 최소한 10dB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나 농인들은 80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 80dB 이하의 소리는 잘 들을 수 없다. 적어도 60dB의 청력을 가지고 있어도 통화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해도 소리만 들리지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되는 것이다.

3. 청각 장애의 원인

① 선천성 - 날때부터 청력을 상실한 경우로 유전, 풍진, 조산(산소 부족과 뇌출혈로 청신경 손상) 등.

② 후천성 - 생후에 청력을 상실한 경우로 뇌막염, 바이러스성 전염병(홍역), 항생제 주사 부작용,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등.

4. 청각 장애로 인해 야기된 문제

① 언어 장애 : 귀가 어두운 관계로 말을 배울 수 없어서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일반인들은 갓난 아기때부터 말을 배운다. 처음에 빠빠, 맘마 같은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휘수를 늘려간다. 6살 쯤이 되면 약 2500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농아인의 경우 귀가 어두운 관계로 말을 배우지 못한다.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정확한 발음이

어렵고 괴상한 소리를 낸다. 말을 못배우는 까닭에, 귀가 먹은 까닭에 말을 통한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어휘력이 뒤떨어진다.

문장력도 형편없고 비참할 정도다. 국어는 농아인에겐 모국어라 되지 못하고 수화가 모국어가 된다. 밥(수화), 보다, 자다, 형, 엄마, 좋다, 나쁘다.

수화는 어휘가 말처럼 풍부하지 못하고 문법적으로 틀린다. 동사의 변화가 수화에 반영되지 않고 조사도 사용을 안하는 편이다.

② 추상개념의 빈곤: 농아인은 못하는 까닭에 이해의 실마리를 눈에서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시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 추상적 개념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종교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 저학년에게 추상적 개념을 가르치기 보다는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환등기, 음판, 그림,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등이나 실물 예화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다.

③ 심리적 문제: 부모나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의 농아에 대한 편견과 멸시 등으로 농아인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농아인은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다”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지배되면 소극적이고 자학적인 퇴행심리가 생기기 쉽다. 열등의식으로 위축된 생활, 대화 부족으로 정서적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심리적 문제는 농아인의 심리적 부적응의 타이타기 보다는 의사소통의 불능에서 기인된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말로 다 표현을 못하고 충분하지 못한 손짓 몇가지로 대신할 수 밖에 없는 답답함이 쌓이고 또 쌓여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농아 부모 밑에서 자란 농아 자녀들에겐 심리적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화로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이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직업적 문제: 청력을 상실한 까닭에 직업의 범위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청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사는 농아인에게엔 부적합하다. 소리와 관계있는 직업은 모두 농아인에게엔 부적합하다. 결국 남는 것은 손으로 하는 직업, 양복, 목공, 양화, 철공, 건설, 인부 등 육체노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직종(컴퓨터 프로그래머, 은행원)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농아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농아인을 고용해 주는 회사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농아인들은 대부분 어렵게 살아간다. 농아인이라도 실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농아인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5. 농아인 교육방법

① 구화교육: 문자 그대로 말로 하는 교육이다. 독특한 발음 훈련 방법을 써서 자음과 모음을 바로 발음하는 법을 배우고 독술술(입모양을 보고 이해하는 기술)을 배운다. 구화교육이 모든 농아인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수화교육: 손짓으로 하는 교육이다.

농아인에게 수화를 가르쳐 주어서 수화를 사용하여 교육시키는 방법인데 이해도에 있어서 구화 교육법보다 훨씬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수화 교육이 문장력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③ Total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에서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교육이다. 구화는 물론 수화, 제스처어, 마임, 그림, 글 등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총동원한 교육법으로 미국에서 매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독교 교육이나 종교 교육에 있어서 구화교육은 실패한 것같고 수화교육이나 Total Communication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은

• 유창한 수화실력 • 농아인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우호적 태도 • 동정심어린 사랑 • 인내심 • 농아인들과의 빈번한 접촉의 경험 • 제스처어 마임 • 적극적인대인 관계

★ 지도할 때의 유의점

• 난해한 어휘사용을 삼간다(일반인에 비해 4~5년 뒤진다) • 일방적인 이야기를 삼가고 주고 받는 대화(원만한 인간관계) • 자신을 농아인으로 여기고 더욱 천숙해 지도록 노력한다 • 예배시간 외에도 교제의 시간을 많이 배려한다(공동체 의식) • 인내와 사랑으로 대한다(배타감정 완화) • 수화없이 말만 하지 않도록 한다(의심 해소)

6. 농아인에 대한 성경적 이해

① 농아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출4:11)

② 농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막7:31-37)

③ 농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요9:)

④ 농아인 된 것이 영적유익이 될 수 있음(고후12:9-10)

가치관과 기독교문화 창출 (제자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문. 89년도의 목사님의 목회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먼저 에베소서 3 : 7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는 89년도 충현 교회의 표어가 될 것입니다.

목회방침을 말씀드리기 전에 목회철학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목회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충현교회의 부름을 받고 위임을 받은 지가 벌써 6 개월이 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변화가 잠잠히 혹은 급속히 생겨 왔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기로 하고 이시간에는 왜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긍지와 아울러 불쾌한 생각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진행에서 기독교적인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민족의 문화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무당굿일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준비위원장과 진행팀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인데 어찌해서 이러한 불쾌한 것들로만 진행될까하는 점에 대해서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민족이 100 년이라는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기독교인이지만 아직도 기독교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기독교 문화의 바탕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유교의 사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지시하는대로 살아와서 부모에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에 딱 맞고 핵심진리인 것처럼 느끼는데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려라’ 하는 설교를 들을 때는 이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이 오히려 기독교인의 모습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문화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기술문화(technical culture)

중첩되는 세 원을 그렸을 때 제일 바깥 원을 기술문화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것은 제일 낡은 문화로 가령 $1 + 1 = 11$ (막대기 하나에 막대기 하나를 더하니깐 막대기 둘) 이라고는 안합니다. $1 + 1 = 2$, 이것은 북한에서도 중공에서도 독일에서도 통하고 19세기에도 21세기에도 통하는 것입니다. 기술문화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같은 성능으로 들립니다. 이것이 기술문화입니다. 우리는 기술문화를 배척할 수도 없고 우리 것만이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일본 문화라고 배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2. 부속문화(sub culture)

부속문화는 중간원의 문화로서 변화 가능한 문화를 말합니다.

여기 아직도 상투를 틀고 도포를 입고 짚신을 신고 갓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위대한 민족주의자라고 보기 보다는 입맛이 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상투를 일찍 자른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단발령이 내려 상투가 잘릴 때는 울고 불고 밥상에 올려 놓고 조상앞에 죄를 지었다고 난리를 폈지만 오늘 레슬링이나 유도를 할 때 아무테나 잡고 때려 눕히는데 그 상투를 안 잘랐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금메달은 못 땀을 것입니다.

때가 되고 시대가 바뀔 때는 바뀔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꼭 피아노와 올겐만 쳐야 음악인줄 알지 여기 만일 장고나 북을 치고 뽕과리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 경건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이 지은 찬송만 좋아했지 우리가 지은 곡을 좋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곡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는 원래는 스코틀랜드 민요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민요에다 찬송가를 붙여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민요에다 찬송가를 붙여 부르면 큰일나는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 북을 울리면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켜 오던 것에서 조그마한 변화가 생기면 굉장한 거부반응을 느끼는 선입관 내지는 그것으로 파생되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데도 꼭 고딕식으로 짓지 않고 덕수궁이나 경복궁처럼 우리의 고전 건축 양식을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충현문화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35년, 충현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지켜온 것들입니다. 이것들 중에는 바뀌어서는 안될 것들도 있고 바뀔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꼭 바뀌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 변경, 교구 확장, 전도의 확장 등은 필요한 때에 곧 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러니 내년 1월부터 하자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에 해가 남쪽에서 뜬다면 모를까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뀐 놓았더니 뻑뻑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예배 시간을 변경한 이유는 시간 간격이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어 예배를 마친 후 교대시간이 여간 북

잡하지 않아서 서로 마주치니까 언성을 높이고 받은 은혜고 뭐고, 신자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띄어 놓으니 좋게 된 것입니다.

교구를 확장하게 된 것은 10개 교구에 10명의 목사님과 10명의 전도사님이 구역을 돌보시는데 적게는 450세대에서 많게는 850세대로 목사님 1명, 전도사님 1명이 이상적으로 돌볼 수 있는 300-500세대에 비해 너무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 혹은 출판부에 따로 앉아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이 8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부 투입하여 14교구를 만들었더니 이상적인 세대수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전도회를 10세 단위로 70개를 만들었습니다. 더욱 이상적인 것은 5세 단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그룹을 많이 만드는 것은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현교회에 처음 나오면 군청에 잡아 놓은 촌닭 같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엔가 소속을 시키지 않으면 홀려가 버립니다. 인간은 무엇에 소속이 되어야 안정감이 생깁니다.

교회가 너무 자격을 따지다 보면 회원을 다 놓치게 됩니다. 찬양대원 자격증 소지 했읍니까, 교회학교 정교사 자격증 가졌읍니까, 70인 전도대원 훈련 받았읍니까, 이래가지고는 교인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소속할 데가 없어 넓은 뒷문으로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전사역후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주보를 보면 등록이 급증하는데 전체 성도수는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다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텃세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해 봅니다.

우리나라 신학교에 교회 성장학이란 과목이 있는데 개설된 지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 아시아 연합 신학교에서 최초로 목사 재 훈련 프로그램에서 교회 성장학을 개설했습니다.

제가 미국 풀러 신학교 교수 재직시에 그 신학교가 미국 전체에서 최초로 그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저는 하도 신기해서 동료 교수가 가르치는 뒷자리에서 어깨 너머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과목인데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있었읍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인류학적, 문화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연구 방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는 신약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니가 성경적 교회 성장 원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교회 성장 원리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귀국해서 몇년간 더 연구해서 「교회 성장의 성경적 원리」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원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80년도 추수 감사절에 할렐루야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경적 원리를 적용시켰더니 두 가정이 시작한 교회가 1년 만에 400 명이 되었습니다. 8년 만에 장년 2,400명, 주일학교 5,000명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충현교회에서 이 원리를 적용시키려니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의식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리라도 거부반응이 일어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훈련을 통하여 의식을 변경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부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휴무제를 폐지하고 세미나를 개설했습니다. 2-3주 전에 주제가 주어지고 팀이 구성되어 연구 발표하고 성경적 결론을 얻어서 기획실에 넘기면 교회 전체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당회에 제시하면 당회에서 엄격히 검토한 후 가부를 결정하여 각 지회, 각 교구로 시달됩니다. 지금 행해지는 일들이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목사 한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속문화입니다.

부속문화는 얼마든지 변개할 수 있는 문화로서 잘못했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 문화를 말합니다. 기술문화가 잘못되었을 때는 mistake라고 하지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속문화가 잘못 되었을 때는 badtaste라고 하지 죄라고는 안하는 것입니다. 입맛이 쓸 뿐입니다.

3. 핵문화(core culture)

핵문화는 가장 가운데 원의 문화로서 쉽게 말해서 가치관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일로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약 때문에 뒤로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전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고 생업이 부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믿지 않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핵문화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핵문화의 변화없이 부속문화의 변화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제자훈련을 받는 것은 목사는 이렇게 섬기시오 교회는 이렇게 받드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 부속문화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는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핵문화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3대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교육

교육은 우리 교회 설립10주년 때 원로 목사님이 전국 일꾼 양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므로 지금까지 잘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별 변동없이 계속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선교

선교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대를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21세기 선교 전략은 19세기의 것으로는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1) 자비량 선교사 파송

저는 선교사를 교인의 십일조를 보내려고 합니다.

토마스 왕 목사님은 50명중 1명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우리 교회는 10명중 1명을 보낼 것입니다. 자비량 선교사로서 가능합니다. 생업을 가진 사람이 일생동안 외국인을 위하여 해외에 나가서 열흘도 좋고 한달도 좋고 1년도 좋은 것입니다. 자기 돈을 벌면서 전도하다가 귀국하는 것입니다. 여행 자율화 덕분으로 이 일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어를 몰라도 영감으로 되는 것입니다. 손짓 발짓, 그림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잠깐 나가는 분도 선교사 타이틀로 갖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하고 자기 일생의 경험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위해 평생 기도하게 하고 그 나라의 선교 후원을 하는 부대가 되게 할 작정입니다.

2) 현지 목사 재교육

이 일은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1억 6천만인데 선교사 한 사람 보내서 언제 1억 6천만을 복음화 할 것입니까. 그러나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재 훈련을 시켜 보냄으로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 목회 사역을 감당한다면 인도네시아 전역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구라과 교회가 날개죽지가 다 늘어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가 세계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고 직접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단기 과정의 훈련이라도 받고 가는 분들은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본에서도 지금 막 새벽 기도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이 생기고 심방 붐이 일어나고 구역예배를 조직하면서 한국 교회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직접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충현교회가 사명감을 갖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이미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을 몇 차례 만나 보았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문의도 해 보았습니다. 노봉린 박사에게 5,000 불의 장학금을 지불했고 연구비를 지불했습니다. 노박사는 전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각 지역을 연구해서 세계 교회의 반응을 조사할 것입니다. 배우기를 원하는 과목과 방법, 강사진, 등등을 연구해서 내년 5월까지의 당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원 건물 옆에 국제회관(international house)을 건축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을 호텔에 모시면 관하기는 할 지 몰라도 영적으로 저하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원 옆에 회의장, 식당, 침실 등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편안한 가운데 철저한 훈련을 받게 합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면 신학교 100개 하는 것보다, 선교사 100명 보내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큰 사역이 될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나라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일을 우리 교회가 담당할 것입니다. 이일

을 위해서 「목회자 연구원」을 만들어 추진할 것입니다. 이 일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이 해야 됩니다.

국제성을 상실해 버리면 충현교회는 돌집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3. 구제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이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며 죽은 종교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까가 아닙니다. 이웃이 굶고 병들어 죽어 가고 있는데 혼자 좋은 옷입고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며칠전 동아일보 사설을 읽고 저는 너무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왕성해서 돌집으로 예배당을 지을 줄은 알면서 고아원 하나 지원하지 못하는가”였습니다. 이것이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바로 우리 충현 교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한 일이 많습니 다만 큰 돌집을 지었으니 책임이 더욱 과중된 것입니다. 큰 집에 어울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돌맹이를 던질 것입니다. 돌집을 지었다고 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집을 지었기 때문에 돌맹이를 던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운데 예배당 본당이 있고 좌측 전방에 교육관, 좌측 후방에 선교관이 있습니다. 구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우리는 또 하나의 집, 사랑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장애자와 극빈자들을 위해서 조그만 진료소도 만들어 치료하면서 복음을 확장해야 합니다. 농어촌의 교역자 자녀들도 데리고 와서 침식을 해결해 주고 무의탁자들이 와서 스스로 생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집을 건립할 것입니다. 탁아소도 운영할 것입니다.

교육, 선교, 구제는 앞서고 뒤편이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요 우리 민족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89년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자의 영적 재무장 다짐

— 제 1 회 충현제자훈련을 마치며 —

좌담회 참석자

일 시 : 1988년 12월 4 일 (주일) 오후 4 시
장 소 : 출판국 회의실
참석자 : 오진국 장로 (원감)
오정현 장로 (부원감)
김재명 장로 (총무)

문흥구 장로 (교과장)
김용섭 권사, 안석현 집사
윤석산 집사 (교육생)
사회 / 손경수 장로
기록 / 김연이 전도사

사회자 :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자 훈련이 충현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큰 활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지난 6월에 홍해작전 40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각성을 일으켰고 8 월에는 여리고 작전에서 구체적인 성경적 비전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영적 각성을 재무장시키고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1 회 제자 훈련을 시도하였습니다. 실제 제자 훈련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들을 서로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원감님께서 제1 회 제자 훈련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오진국 : 주제는 엡 3 : 7 말씀을 근거로 '이 복음을 위하여' 이었고 표어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노라' 였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는 위임 목사님의 내년도 목회 방침이기도 합니다. 목적은 '영적 재 무장을 위한 제자 훈련' 이었습니다.

사회자 : 이번 훈련은 몇차례에 걸쳐 몇명이 수료했는지요?

김재명 : 9월 8 일에 시작해서 12월 3 일에 끝냈는데 15회에 걸쳐 총 3, 124 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직분은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교역자 사모, 직원, 찬

양대원, 교사들 이었습니다. 14차까지는 기도원에서 1박 2일 코스로 실시했고 사정이 있어서 기도원까지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12월 2, 3일 양일간에 걸쳐 교회에서 실시했습니다.

20개 반으로 편성되어 운영하였는데 연령, 교구, 구역, 직분을 끌고루 편성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와 같은 반에 안 넣어 주면 안 가겠다고 때를 쓰는 바람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 일동 웃음-

직장을 쉬어 가면서 훈련을 받으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읍니다.

사회자 : 이번 제자 훈련은 참석자마다 은혜를 받고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아쉬움을 이구동성으로 말했는데 이와 같이 성공을 거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석현 : 교회에서 휴리닝을 받아 일고서부터 쭉 훈련했습니다. 일체감을 느끼며 뭉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제가 지로 압축한다면 첫째는 산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산에 가서 새벽기도를 할 때 신앙적인 면에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강사님들의 좋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외부 강사님들을 모신 것도 아닌데 내용이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로 압축되었고 강사님들의 진지함에 모두들 강의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로는 공동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빅(크리스찬 에어로빅)과 줄다리기, 피구등은 모두 훈련 생들을 하나로 묶는데 충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힘을 안 쓰다가 갑자기 힘을 써 줄을 당기다가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넘어져 온 몸이 뒤틀어지고 아파 일주일 고생했습니다. -일동 웃음- 아뭏든 이번 훈련은 획기적이었고 고도의 효과를 거둔 훈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 김 용섭 권사님, 이번 훈련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섭 : 신앙 생활을 한다면서도 잠자는 상태에 있기가 일쑤인데 이번 훈련은 그야말로 영적 무장을 다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별 시간이 짧아 서로 깊이 알았으면 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한 점이었지만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갓난 애기를 가진 분들, 또 일반 성도들이 너무 부러워 하는데 이들을 위한 기회도 주어졌으면 합니다.

사회자 : 이번 훈련은 3,124명의 대 규모 훈련이었는데 기도원 훈련의 유익점이라면 어떤 점일까요?

문홍구 : 들어갈 때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며 교회에서 하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일단 들어갔다往外는 너무 짧았다는 이야기를 너나 할 것없이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원으로 몰아 넣으니 들락날락하는 일이 없고 다른 잡념을 일체 배제할 수 있고 가사의 모든 일로부터도 자유로와 훈련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유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일은 교회에서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훈련은 기도원에서 받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 이번 훈련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오진국 : 먼저 이번 훈련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위임 목사님이 친히 훈련을 받으셨고 교역자, 사모,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훈련에 임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특징은 영성 훈련 중에도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하나가 되어 승부를 겨룰 수 있어서 영성 훈련에 못지 않은 일체감 훈련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이번 훈련에 배후에서 수고하신 봉사요원들이 많았는데 몇명이나 되었으며 어떤 일을 하었는지요?

오정현 : 연인원 300여명이 봉사요원으로 수고하였는데 훈련복 제작으로부터 버스 대절, 접수, 숙소 배정, 식사 봉사, 간식 배부, 강사 접대, 진행등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과 어린 아기를 돌보는 일도 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소려 없이 봉사한 요원들의 수고도 이번 제자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하는 데 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 무슨 일이나 배후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일손을 잊어서는 안되겠지요, 이번 훈련의 결과가 삶의 어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리라고 기대되는지요?

윤석산 : 예상되기로는 교회적으로 사랑이 넘쳐나겠고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성을 띄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피상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막상 참여하고 나서는 상당한 감동을 받고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는 걸 보니 교회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고 각 구역에서도 성경 공부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리



라 예상됩니다.

사회자 : 이번 훈련이 가치관 변화 내지는 기독교 문화 창출에 큰 역할을 미칠 것으로 확신하시는지요?

김용섭 : 네, 많은 강자들이 그것을 지지해 주었다고 생각되지만 특히 위임 목사님과의 대화 시간에 문화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의 창출 내지는 전달의 의무감을 깨우쳐 주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관의 변화(핵문화)라고 강조하셨으므로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60% 이상을 밖으로 내어 보낸다고 하신 말씀은 교회의 가치관 형성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동감입니다. 이번 훈련에 지도를 맡으신 이조웅 전사도님, 이 좋은 프로그램을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획하고 계신지요?

이조웅 : 이번 훈련은 굉장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고 또한 일반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되어 3월부터는 일반 성도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은 매년 일회 실시하므로 영적 각성 내지는 재 무장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위임 목사님의 방침입니다.

사회자 :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다소 시정할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오정현 : 진행 교관님들을 기마다 다른 팀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차질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단일 팀으로 구성하여 보다 철저한 훈련을 시켜 완벽한 진행을 수행하도록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명 : 미리 신청한 사람들이 막상 당일에 오지 않아서 불편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고 예상 인원을 훨씬 밑도는 때도 있어서 교육 기간이 연장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에는 철저히 점검해서 250명 선에서 운영하여 11월 말에는 훈련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홍구 : 새벽 기도 담당은 진행 교역자가 맡았으면 좋겠고 시간도 좀 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자 훈련은 충현 교회가 미래 지향적인 교회로서 세계 선교의 비전과 복음 전도 확산을 위한 의미를 제시해 주었으

며 앞으로 교육, 선교, 구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동력을 불어 넣어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충현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 * *

35년 동안 튼튼한 기초를 다진 충현교회는 이제 그 위에 아름다운 건물(영적)을 세워야 한다. 이 건물을 세움에 있어 설계도가 제시되고 이 설계를 이루기 위하여 이번 제자 훈련은 영적으로 재 무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다. 위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번 훈련의 의의를 들어 보았다.

이종윤 : 먼저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하여 충현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역량있는 일꾼이 많은 교회, 무슨 일이든지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교회임을 확인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권 문제(Priority)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까지 넓고 깊게 터전을 닦은 충현교회가 일대 도약을 하기 전에 영적 각성, 영적 재 무장을 위한 제자 훈련을 시기를 맞추어 실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목표가 정해지면 다소 잡음이 생기고 반대에 부딪히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된다. 특히 이번 훈련의 미필자는 제직 임명에서 제외하기도 결정하고 공포했을 때는 비난의 소리가 빗발치듯했고 상당수가 탈락될 것이 예상되어 염려도 되었지만 석달의 기회가 주어졌고 또 기도원에 들어가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까지 훈련을 받도록 기회를 부여 했는 데도 이것마저 참석하지 않는 제직이라면 교회에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 사료되어 진실한 일꾼 등용을 위해서 그대로 밀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탈락자는 불과 0.1% 선에 불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훈련을 축복하신 증거라고 생각한다.

강의는 “for what” 즉 target 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설정을 영성 훈련에 두었던 바 전반적으로 성도들의 반응이 좋았고 소기의 목적은 이루어졌다고 본다.

또 외부적으로는 각 교회가 충현 제자 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위탁 훈련 문제를 상의해 오기도 하여 상당히 기쁘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충현교회가 한국 교회에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훈련 프로그램

첫 째 날

시 간	소 요 시 간	내 용
오후 6 : 30까지		교회집합
6 : 30 - 7 : 15	45분	저녁식사, 명찰, 훈련복 지급
7 : 15 - 7 : 30	15분	인원점검, 오리엔테이션
7 : 30 - 7 : 40	10분	승차 및 출발
7 : 40 - 8 : 30	50분	기도원 도착
8 : 30 - 8 : 50	20분	숙소배정, 정리정돈
8 : 50 - 9 : 00	10분	찬 양
9 : 00 - 9 : 50	50분	저녁집회 '위대한 명령'
9 : 50 - 10 : 10	20분	결단의 시간
10 : 10 - 10 : 50	40분	방별 기도회 및 친교(간식)
10 : 50 - 11 : 10	20분	세 면
11 : 10 - 11 : 20	10분	정리정돈 및 점호
11 : 20 -		취 침

둘 째 날

시 간	소 요 시 간	내 용
오전 5 : 00 - 5 : 20	20분	기상 및 세면
5 : 20 - 5 : 40	20분	새벽기도회
5 : 40 - 6 : 20	40분	산상 개인기도
6 : 20 - 6 : 40	20분	체조 및 구보
6 : 40 - 7 : 00	20분	휴 식
7 : 00 - 8 : 00	60분	아침식사
8 : 00 - 8 : 10	10분	찬양
8 : 10 - 9 : 10	60분	강의(1) '구원과 확신'
9 : 10 - 9 : 20	10분	휴 식
9 : 20 - 9 : 30	10분	찬 양
9 : 30 - 10 : 30	60분	강의(2) '영적각성의 출발'
10 : 30 - 10 : 50	20분	친교의 시간(간식)
10 : 50 - 11 : 00	10분	찬 양
11 : 00 - 12 : 00	60분	강의(3) '그리스도를 닮는 조건'
오후 12 : 00 - 1 : 00	60분	점심식사
1 : 00 - 1 : 40	40분	공동체 훈련
1 : 40 - 1 : 50	10분	휴식(간식)
1 : 50 - 2 : 00	10분	찬 양
2 : 00 - 3 : 00	60분	강의(4) '교회일군의 자세'
3 : 00 - 3 : 10	10분	기념사진 촬영
3 : 10 - 4 : 10	60분	위임목사님과의 대화
4 : 10 - 4 : 30	20분	수 료 식
4 : 30 - 4 : 40	10분	출발 준비
4 : 40 -	10분	기도원 출발

이 복음을 위하여

(제자훈련을 마치고)

이 영 열

(집사·12교구)

제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엄숙하면서도 넘치는 사랑과 엄격한 그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그 의미가 자못 숭고하고 엄숙하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용어가 의미하는 뉘앙스가 우리에게 짐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옛날부터도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스승의 언행은 제자들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도 바로 스승과 제자간의 중요성을 뜻하는데서 나온 표현이다.

이렇게 볼 때 세상에서도 우리 인간은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것은 그분의 됨됨이를 제자로서 닮아가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토록 스승과 제자간의 관계가 심오하게 설명되어질 때에야 예수님의 제자로써의 그 위치는 실로 그 어떤 것에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부터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미천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건은 우리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이다.

금번 우리 충현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된 신분으로 훈련을 받게된 제자 훈련장이 마련되었으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잊고 이 훈련장으로 가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감사와 설레는 마음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우리는 드디어 훈련장에 도착했다. 충현기도 동산에 마련된 이곳 훈련장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청결하고 아담하게 단장되어 있었고 정성스럽게 마련된 이곳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아코오디온의 음률은 우리가 충분히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켜 주었다.

“위대한 명령”이라는 제하에 시작된 강의는 참된 신앙고백자가 되어서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두며 가치있는 헌신을 드리면서 항상 종으로써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새벽종소리와 함께 기도 동산으로 찬바람을 헤치며 올라가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며,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새벽에 주님주신 만나를 거두러 나왔던 것처럼 영적 만나를 양껏 거둘수가 있었다.

구원의 필요성과 방법, 확신과 성숙에 대해서 깨닫게 됨으로써 특별한총을 받은 제자의 신분을 또 한번 감사했다.

또한 ‘구원받은 제자는 영적전쟁에 더 잘 싸우기 위해 영적각성을 해야한다. 이 각성은 하나님과 내안에 행하신 그의 사역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변함없이 임재하실 것을 확신해 본다.

내적 고통과 외적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며 절대 감사,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자세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제자가 될 것을 확신도 해본다.

위임목사님과 대화시간에는 분명하고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목회방향을 제시하시며 세계속의 충현교회가 되기 위해 선교, 구제,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시고 이를 위해 특수 선교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는 놀라운 계획에 정말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이 사명을 감당하겠구나 새롭게 다짐도 하여 보았다.

이 훈련은 믿음의 영적 훈련으로, 회개하고 결심하는 훈련으로, 깊은 각오와 실천을 다짐하는 훈련으로 이 훈련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앞으로의 생활에 더욱 결실을 맺는, 훈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다짐하는 참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한다.

주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노라고 힘있게 외치게 하소서.

여로 (旅路)

장년 2부 신동기

새벽에
부르튼 영혼을
줍는다
시리운 가슴과
가슴으로

오늘도
비릿한 세상속을
기어간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전에도
'덜익은 속사랑이
지금도 몸살하며
시퍼렇게 앓는다

이제
겨우 토해낸 나
맨발로
절름이며 걷는다
피묻은 언덕을

옹매디진
무지를 풀면서
한없이 가까이
당신의 낙원을
바란다

만신창이된
나
우물가의 여인도
그곳에 있으리라
당신과 함께
그곳에

(제자호련, 새벽기도 후에)

개척자의 정신

막 1 : 1 - 8

임동선 목사

(로스엔젤리스 동양선교교회)

‘개척자’란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어 씨를 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이미 손 댄 곳에 손을 대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백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과 넉넉한 여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없는 가운데서 일을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개척자는 분명한 꿈을 가진 사람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온 사람으로서 400년 동안 유대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을 때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려준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순교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보고, 바른 말을 하고, 바로 증거하고 바로 살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와 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과 같이 일하다가 무지개와 같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쳤습니다만 인생을 가장 깊게, 굵게 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개척정신은

첫째로, 길 닦는 정신입니다.

본문 2절을 보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개척자는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화의 왕, 만왕의 왕,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영혼을 전지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오시기 전에 앞길을 닦는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입니다.

길을 닦으려면 곧게, 넓게, 튼튼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를 잘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때로는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민권운동을 하다가 맴피스에서 총에 맞아 죽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흑인들 뿐 아니라 모든 정치가들의 마음속에도 길을 뚫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200년 동안 그렇게도 염원하던 흑인들도 좋은 학교에 들어갈 권리, 좋은 직업을 가질 권리, 좋은 곳에 집을 사서 살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나 하나가 앉고 서고 말하고 움직이고 땀흘리는 그것이 통일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뿌려 가면서라도 곧은 길, 넓은 길, 튼튼한 길, 세계 진출의 길, 세계 평화의 길, 번영의 길, 영생의 길을 잘 닦는 개척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의욕의 정신입니다.

본문 3절을 보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대명사로 바꾸어 말한 것입니다.

‘의욕’이란 끓어 오르는 마음, 불붙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의욕에 불탄 사람입니다.

‘의욕’이란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연습에 임하는 것은 이국의 상공에 조국의 깃발을 날릴 뿐 아니라 금메달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욕의 대상이 가치가 있을 때, 영원성이 있을

때 그 의욕은 강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목이 잘리면서 사명에 충실했던 것은 의욕의 대상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길을 닦는, 영혼을 건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가치있고 분명하고 영원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욕이 강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발명가의 대왕 토마스 에디슨이 천번을 연구하고 실패를 했는데도 실패하자 젊은 기자 하나가 “일치감치 그만 두시고 딱거나 연구하시죠?” 하자 에디슨은 툴 어저라 쳐다보다가 “여보게, 이미 내가 여기서 큰 것 하나 발견했네. 천 번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일세” 그리고는 기어이 성공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 큰 것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의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세째로, 미래의 정신입니다.

본문 7-8절을 보면 「... 나보다 능력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진다는 미래의 정신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새로운 꿈을 가지고 터를 닦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과거 회고주의도, 현실 도취주의도 아닙니다. 미래주의입니다. 창조부터, 타락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미래주의가 기독교입니다.

문화인과 야만인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야만인은 그날 밖에 없습니다. 문화인은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것은 미래의 정신을 말합니다.

역사가 찰스 에비어드는 백발이 넘도록 역사만 연구했는데 그의 결론은 “아무리 캄캄한 구름이 낀 밤이지만 동서사방을 보니 반짝이는 별 하나는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하루 종일 부는 법이 없고, 지진도 잠

깐이지 종일 흔드는 법이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태양이 없어진 것 아니며 엄동설한도 석달만 지나면 가지 말래도 가고 맙니다.

네째로, 희생정신입니다.

본문 4-6절을 보니 세례 요한의 거치는 광야, 입은 것은 약대 털옷,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라 하였습니다. 완전한 의식주의 희생입니다.

세례 요한은 젊은 사람이고 문벌 좋은 사람이고 학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로마인들이나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타협하면 좋은 집에서 예루살렘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개척자요 길 닦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사명때문에 완전한 희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둔 밤을 밝히는 촛가락도 녹아질 때 방이 환한 것이고 휘발유가 소모될 때에 자동차가 굴러가는 법, 비누가 닳아질 때 옷이 말랑게 빨아지는 것, 어머니가 해산의 피를 흘릴 때 새로운 생명이 출산되는 것처럼 개척자에게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의 희생을 통해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미국이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회는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허리띠를 졸라맨 성도들의 희생이 감사해서 아무 조건없이 그저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집회인 것을 감사 합니다.

인류 역사는 용감한 개척자들에 의해서 얻어졌고 진전했고 발전되었고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개척자의 생애는 땀과 눈물과 피와 가시밭을 걸어가는 고독한 생활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이러한 용감한 개척자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오늘 이 세계가 보다 더 번영하고 더 행복한 지구촌이 되는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개척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은 다 세례 요한의 길 닦는 정신, 불타는 의욕의 정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신, 희생적 정신으로 개인이 발전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번영하고 세계사에 기여하는 개척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8. 12. 16)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12월달에 완공 시키려한대요.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성전은 아직 다 만들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다 지어 진대요.

거대하고 멋있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드릴다는 것이 꿈만 같고 기뻐요.

하나님, 이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지도록 원합니다.

이 성전이 큰만큼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꼭 차기를 원합니다.

둘 하나 하나가 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지은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그리고 이 성전은 무지 큰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믿음이 꼭차게 해주세요. 빨리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권 정 미
(4학년 10반)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이 성전을 짓기까지 무사히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려요.

저는 이 성전 헌당을 앞두고 자부심도 커졌으며 믿음도 더 자란 것 같아요.

언제쯤 우리들이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전이 이루어질까 하고 바랬는데 바로 눈앞에 다가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땀과 정성을 쏟아 지은 이 성전으로 인해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의 사람도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큰 영광 내려 주세요. 믿는 우리 의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죄인을 도우시려고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제부터 새 성전은 물론 소석관, 선교관의 자마다 성도들로 꼭차게 해주세요. 저도 노력하며 전도할게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모든것을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채 송 아
(4학년 7반)

“이 기쁨, 이 감격, 오직 하나님께”

충현 새예배당 봉헌
1만2천여 성도 한자리에 모여 헌당예배

1988년 12월 20일 오후 7시, 충현교회 새예배당에서 헌당감사에배를 드렸다.

김창인 원로목사를 비롯한 이종윤 위임목사, 그리고 국내외 목회자 및 성도들 1만2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헌당예배는 당회장 이종윤 목사 사회로 진행되었다.

8년8개월 12일 동안, 아니 대지를 구입한 때로부터 20년간 성도들의 피나는 기도와 땀 흘린 헌신의 열매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계적인 고딕식 새예배당을 완공, 하나님께 바치는 이날 예배는 할렐루야의 찬송과, 경배의 찬양이 1만2천여명의 온 성전에 울려 퍼졌다.

이날 헌금의 전액은 소련의 지진으로 인한 희생유가족에게 보내기로 했으며, 최석주 장로의 건축경과보고, 건축위원장 임광식 장로의 헌전사, 당회장의 수선사가 있었다.

성서교독과, 주기도합창, 그리고 봉헌사, 봉헌기도가 있은후 5백명의 연합찬양대의 ‘할렐루야’ 찬양이 있었으며, 김창인 원로목사의 ‘예루살렘을 사랑함시다’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건축위원 및 공사담당 건설회사 및 현상담당자들에게 위임목사의 감사패가 증정되었으며, 이 성헌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와 임동선목사(미국나성 동양선교교회목사)의 축사 그리고 당회서기 윤명식 장로의 인사 및 광고, 찬송245 장을 다같이 부른뒤 한경직 목사(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 사업협의회 이사장)의 축도로 약 2시간만에 헌당예배를 마쳤다.

이에 앞서 식전행사로 오후 5시 축하 리셉션이 있었고, 오후 6시 “충현돌” 제막식, 6시 10분 축하케이크 커팅, 6시 20분 도서실 이전 확장개관 테이프 커팅, 6시 40분 온 성도들이 암송하여 친히 붓글씨를 쓴 충현암송 성경(66권) 헌정식 등의 순서가 있었다.

또 이날의 헌당예배를 취재하기 위하여 KBS TV를 비롯한 기독교방송, 극동방송의 현장 녹음 중계, 그리고 국내외 일간지 및 교계신문, 취재기자들의 열띤 취재경쟁도 이 채로왔다.

축하리셉션

현당에배를 앞두고 식전행사가진행되었다.

오후 5 시 선교관 앞뜰에서 있던 가든리셉션에는 1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 축하의 떡잔치가 벌어졌다.

이날 떡잔치엔 찬송 246장을 기쁨으로 다같이 합창한 후 이원길목사의 기도가 있었다.

또 하나님의 진을 경외하는 성시낭독이 있었고, 온 믿음의 식구들이 절편을 비롯한 꿀떡, 깨떡, 인절미등을 나누어 들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피차 교환했다.

또 리셉션 현장엔 교회당모형 양쪽 옆으로 기도하는 천사와 십자가를 든 천사형태의 일음이 조각되어보이는의 즐거움을 더한층 풍성케했다.



로 목사의 기도가 있었다.

김목사는 “충현교회는 흥해를 가르고, 여러교를 무너뜨리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 친히 오셔서 천국 꽃피우는 영광을 개인과 가정, 교회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언약의 돌을 확인키 위한 돌”로 이 돌이 세워졌음을 설명하면서 “이 동산을 깃세마네동산이라 명명하고, 지나갈때마다 예루살렘 성진을 기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충현돌 제막의 의의를 되새겼다.

김창인 원로목사, 이종윤 위임목사, 임광식 건축위원장, 최석주 건건축부위원장, 윤명식 당회서기, 김영삼 장로가 잠은 하얀 베일은 하나, 돌, 셋의 구령과 함께 사뿐히 내려 앉고 충현교회의 명찰은 단 돌이 그 자태를 드러내었다.

축하케이크 커팅

염광여고 고적대의 연주에 맞추어 리셉션현장(선교관 앞뜰)까지 도착, 이미 마련된 현당 축하 케이크 커팅이 있었다.

김창인목사, 이종윤목사, 임광식장로, 최석주장로, 김영삼장로, 윤

명식장로가 촛불을 끄고 케익을 자를때 주위에 둘러서 있던 온성도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있었다.

도서실 이전 확장개관 테이프 커팅

염광여고 고적대의 광파레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선교관 2층에 새로 마련된 충현도서실 개관 테이프 커팅이 있었다.

위임목사는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영력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부단히 연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되 감성에 치우치다가 진리되시는 말씀을 무시하는 부끄러운 자리에 앉지말고, 이성에 치우치다가 성령을 무시하는자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자마다 영원한 진리를 맛보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커팅은 김창인원로목사 이종윤위임목사, 김원선 도서실장, 윤명식당회서기가 참여했으며, 모든 장로님들과 함께 서고와 열람실을 돌아보았다.

또 이자리에서 암송성경 제작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김경성 신도사 외 4인에게 표창순서도 가졌다.

『충현돌』 제막식

대학부·청년부 회원들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오후 6 시 깃세마네 동산(교회당 후문입구)에 세워진 충현교회 이름이 새겨진 “돌” 제막식이 있었다.

이종윤 위임목사 사회로 찬송246장 1 절을 다같이 부른뒤 김창인 원



암송성경 헌정

예배 시작 30분 전에 본당은 이미 성도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예배실 밖에서는 고적대의 연주소리가 영광을 한층 드리내었다. 고적대의 인도로 도서관에서 출발한 암송성경은 웅장한 성전건물 앞구리를 돌아 법궐을 뒀 이 이스라엘의 대행진을 시작했고 기독교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며 충계를 올랐다. 약 10분간 바깥 뜰에 머무는가 했더니 초만원을 이룬 성도사이로 기립 박수를 받으며 엄숙하게 들어왔다.

성경을 암송하기에는 너무나 노쇠한 할머니들, 성경을 암송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젊은이들, 직장인들, 주부들, 어린이들 그러나 이 성경은 기필코 완성되어야겠기에 울며 기도하며 밤늦게까지 애타하며 기록한 그 성경. 완전한 책을 이루어 눈앞에 들어올 때 보논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때로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지만 충현의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이렇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전해야겠기에 우리는 끝내내 내



고야 말했다.이 책이 세계 유수한 도서관에 소장될 때 우리 충현의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성이 심령마다 전해지리라.

암송성경 제작 동기를 이중운 위임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선물가운데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기록된 말씀(성경)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말씀때문에 생활과 믿음의 표준으로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성경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79년~80년 중공을 방문시 심양·할빈지역 성도들이 라디오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들의 성경은 다 헤어진 불품없는 노트에 연필로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까지 라디오방송을 듣고 기록한 것임을 보고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국민학교시절에 암송한 성경 몇구절을 기억하며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헌당을 하기 전에 성구 다섯절만이라도 외우자 하여 6천 성도들이 암송하고, 암송한 성경

구절을 붓으로 친히 기록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온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책이 되었으며, 앞으로 저희교회는 350부 사본을 만들어 전세계 유수한 도서관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또 기록자의 성명을 인덱스 제작해 자자손손 감사하게 함과 동시에 암송성경을 통해 하나님말씀 사랑을 확인케하려는 것입니다. 헌당에 앞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또 한가지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암송성경 헌성을 위해 김창인 원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섞어 교회를 세워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은혜아래 새 예배당 건축케 하시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한결한결 암송하여 기록한 이 책을 만들어 바치오니 제물로 받으시고 기록자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생수가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교회되어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전하는 교회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후 6 시50분

오케스트라 서곡(지휘 : 이관섭, 반주 : 백금옥)

오후 6 시 57분

예배순서 담당자및 장로입장
핸드벨 콰이어 연주(시온성과 같은 교회, 245장)

오후 7 시

환영의 말씀 (이중윤 위임목사)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께 이 성전을 바치는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묵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찬양대 묵도송

신앙고백(사도신경)

찬송 (다같이 일어서서 246장)

기도 (정진경목사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경총회장)

“출현교회가 이땅에 창립된 35 년 역사를 통해 가장 기쁘고 뜻깊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장안에 수십층의 고층건물이 즐비하나 오늘 밤 이 장엄하고도 현대적인 성전을 감사와 기쁨으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이요 뜻임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이며 성령께서 내주시는 심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이 심을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딤후 3:15)



더욱 축복하셔서 이 강단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가슴마다 닿게 하시며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못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소외된 자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세사장의 책임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편하는 예언자적 책임도 다하게 하시며 한국교회의 방향을 바로 인도하는 역할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약성경 봉독(김병혁목사/합동신학원 교수)

시122: 1 - 9,

왕상 8 : 27-30

특송(박인수교수 / 서울대 교수)

신약성경봉독(손봉호 장로 /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중앙의원)

고전 3 : 10-17

마16 : 13-20

현금기도 : (윤영탁목사, 충현교회 협동목사)

“하늘과 하늘위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시어 주님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이 기쁜날 저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소련의 아르메니아에 지진으로 상처를 받은 저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곳에 있는 지하교회가 이 물질을 통하여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물질만이 아니라 그곳에 희생적인 사역자를 보내는 일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경과보고(최석주 장로 / 건축위원회부위원장)

P40 참고

지난 주일 건축헌금을 드릴 당시 5억 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주일에 3억 4천만원이 헌금되어 나머지 1억 7천만원은 당회원들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는데 월요일 저녁 집회시까지 헌금된 것이 9천만원이 되어 당회원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했더니 화요일 계속 들어와서 5시 정각에 마지막 천만원이 입금되므로 1원도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정시에 리셉션이 시작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헌건사(임광식 장로 / 건축위원회위원장)

하나님의 분부와 본교회 성도들의 뜻을 받들어 그 크신 은총을 힘입어 예배당 건축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과 맡겨진 양무리를 위하여 이 진을 권리하신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열쇠를 드립니다.

수건사(위임목사 / 원로목사님과함께)

나는 이 열쇠를 받았으나 이 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진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진의 문을 열며 닫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의 문을 열 때에 영광을 거두시며 이 진의 문을 닫을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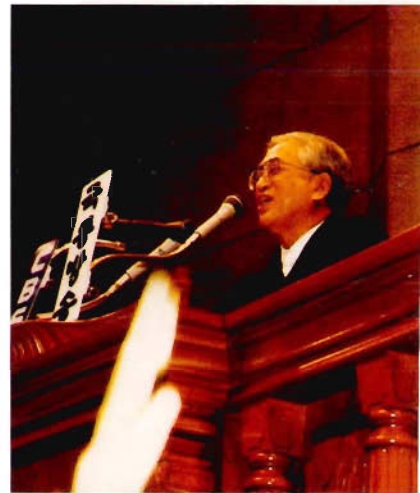
성시교독(다함께)

주기도(다함께)

봉헌사(위임목사, 회중)

봉헌기도 위임목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을 헌당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부



디 이 진을 성별하여 받으시고 말씀하신대로 여호와와 이름의 이곳에 두시옵소서. 마음을 이곳에 두시옵소서.

이 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이 진을 통하여 신령한 생수가 샘솟듯 솟아나 만민 강수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신령한 사역에 동참한 자마다 다윗갈게 하옵시며 그의 아들 솔로몬처럼 자손손 복을 받게 하옵소서.....”

공포(위임목사:

나는 하나님의 사자 충현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충현교회 교우들 손으로 건축된 이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한 하나님의 진으로 성별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찬양 (연합찬양대 / 할렐루야)

설교 (김창인 원로목사)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예루살렘은 세가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지상의 교회, 신령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누릴 천국은 새 예루

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주인, 충현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바 은혜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내 개인의 사정, 가정의 사정, 나라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바치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곳입니다. 자복하고 응답받는 곳이 이곳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를 떨면서 순종할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귀가 뚫립니다. 마음의 결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앞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위로하는 곳입니다. 우리만 은혜받고 기뻐하

는 곳만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천국일군 많이 키워 세상으로 보내는 천국일군 양성소입니다. 빈약한자를 구제하는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선한 일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패 증정 (위임목사)

목사 : 김장인	이종윤	
상로 : 김기성	임광식	최석주
이창업	윤종성	오진국
노광현	이병학	강모용
최상규	이응선	하대선
김재균	윤명식	최무길
김천채	최명환	이태규
윤종순	김영개	박철훈
이창호	오정수	최대원
권사 : 이옥녀	안윤진	오희명
이혜숙	원도화	이현실
심사 : 최 환	이정우	김영은
홍춘식	최통규	김정태
홍주영	진홍용	최선두
윤상언	하영수	유성남
장봉순		

대표이사 : 최명환	김상연	황시욱
이선택	양오석	안 홍
임선재	조용호	이희재
현상소장 : 정상익	최명윤	
음향시설 : 추열래	윤광영	이용하
최병호	하상구	박동윤
김현태	여운해	

축사 (이성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먼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축사의 축하를 드립니다. 내부에 들어와서 구석구석 섬세하게 단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세라하는 여러분의 열렬한 마



음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 부러운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훌륭한 김창인 목사님과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좋은 후계자 이종운 목사님은 김 목사님의 신앙과 덕과 모든 것을 계승해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분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받은 복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압도하는 권능이 있기를, 천국의 열쇠가 있기를, 3.8선 넘어 저 북쪽하늘을 활짝 여는 열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사 (임동선 목사/미국 라성 동양선교교회 목사)

선진국의 어깨를 겨누는 여러가지가 많은 중에 한국 기독교 100년, 100만인의 숫자를 자랑하는데 세계에 내놓을 만한 진이 안보여 제 마음속에 늘 서운했는데 금번에 이렇게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세계적인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내달이면 퇴임할 레이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10년 조금 더 살기 위해 357억원의 집을 마련하였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20,000여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구제, 봉사

친교하는 이 성전에 200억 든 것은 사치가 아니고 참으로 훌륭한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충정과 사랑과 희생이라 생각되어 치하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 성전이 자랑과 교만과 외국인의 관광지로만 끝나지 말고 국내외 영혼 구원과 인재 배출로 하나님께는 영광, 조국에는 명예, 세계에는 평화를 증진하는 세계의 교회로 새역사 창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245장)

축도 (한경직 목사/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이사장)

총현교회 건축현황

건축일지

1970.	11.	15	예배당 신축대지 9,000평 매입
1978.	5.	25	새 예배당 대지에서 기공예배
1980.	4.	8	제1차공사 착공(본당·교육관·선교관)
1982.	9.	19	제1차공사 준공
1982.	10.	5	제2차공사 착공
1984.	4.	21	제2차공사 준공, 갈릴리홀 입당예배
1986.	4.	8	제3차공사 착공
1987.	7.	12	제3차공사 내장공사 완료, 입당예배
1988.	12.	20	제3차공사 준공, 본당 헌당예배

건축면적(㎡)

	본당	교육관	선교관
B 2			7,232.9
B 1	2,125.8		6,152.9
1	3,429.8	954.58	640
2	3,629	1,549.76	640
3	1,970.6	1,549.76	640
4	1,137.48	1,549.76	640
5	695.72	1,549.76	640
P 1	288	288	
P 2	288		
계	13,564.4 (4,103.2평)	7,441.62 (2,251.8평)	16,585.8 (5,017.18평)
합계	37,591.82㎡ (11,371.47평)		

대지면적(㎡)

대지합계 : 19,944㎡ (6,432평)

공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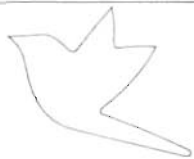
제1차공사	1980. 4 ~ 1982. 9 (25개월)
제2차공사	1982. 10 ~ 1984. 4 (19개월)
제3차공사	1986. 4 ~ 1988. 12 (33개월)

연인원

제1차공사	68,484명
제2차공사	72,547명
제3차공사	70,309명
감독	25,150명
계	236,490명

투입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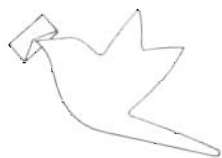
시멘트	243,837포
모래	17,063㎥ (루베)
자갈	10,566㎥
철근	2,780t
철골	435t
레미콘	23,160㎥
동판	38t
원석	5,100㎥ (183,600재)



하나님의 전

파아란 하늘로
 빨려들어 갈 듯
 우뚝솟은
 하나님의 전이여
 기나 긴 나날속에
 공사의 허물
 하나둘 벗으며
 그 웅장한 자태가
 그 눈부신 자태가
 드러나는 전이여
 하이얀
 새 모시 옷 입은
 그하나하나의
 돌들이
 씨석 날석
 돌 울을 실되어 붙일때
 눈물과 땀방울이 변하여
 큰 돌이 되었네
 눈부시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아-
 충현의 전이여
 하나님의 전이여

장년 2부 김 운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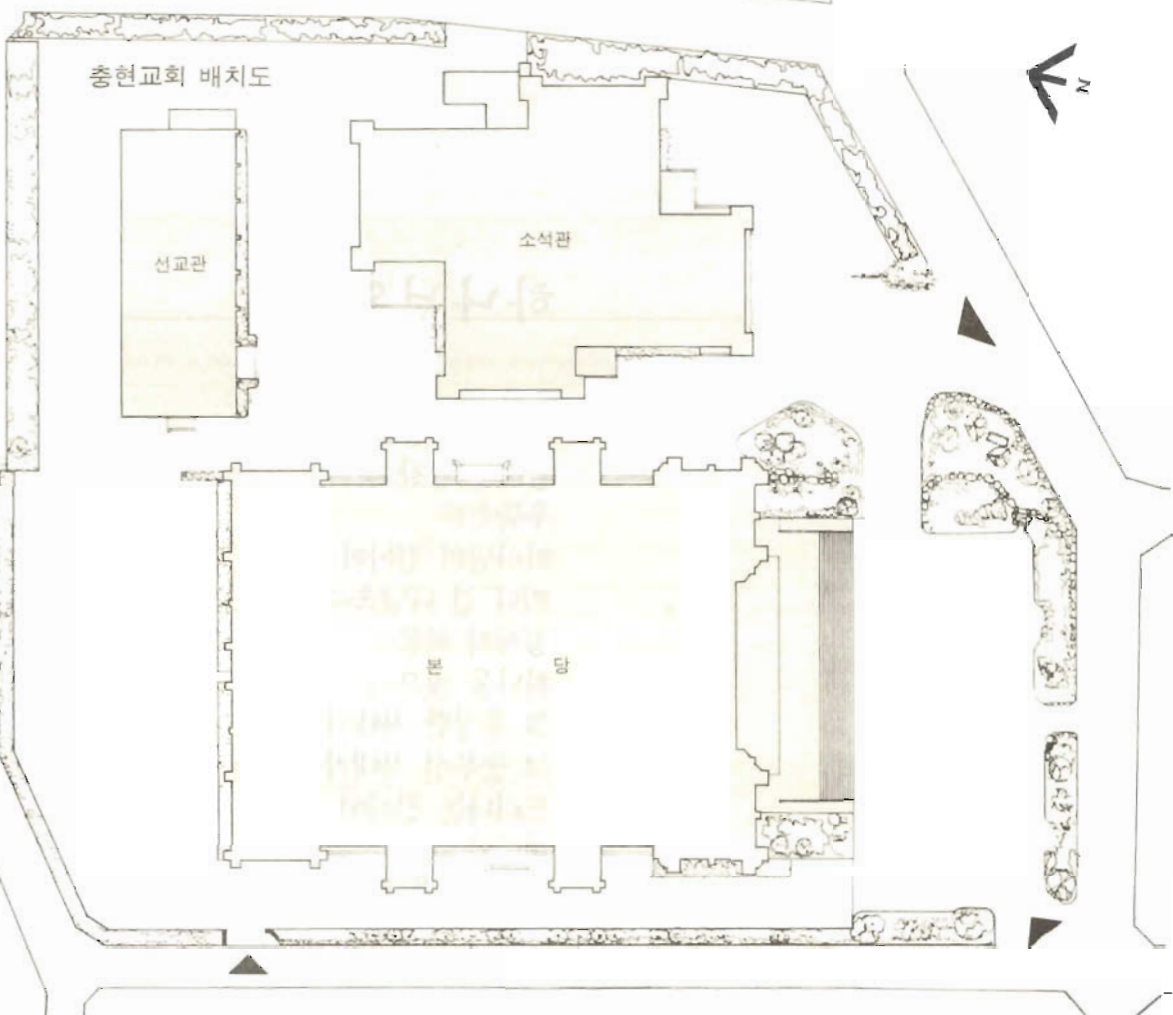
충현교회 평면도

충현교회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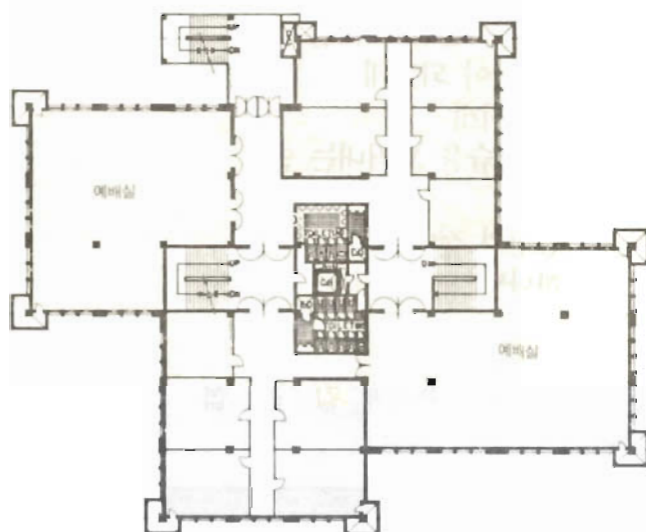


소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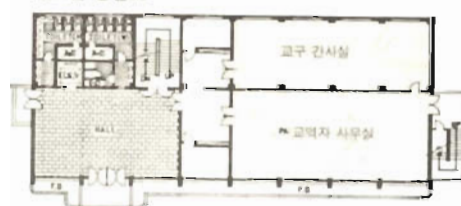
선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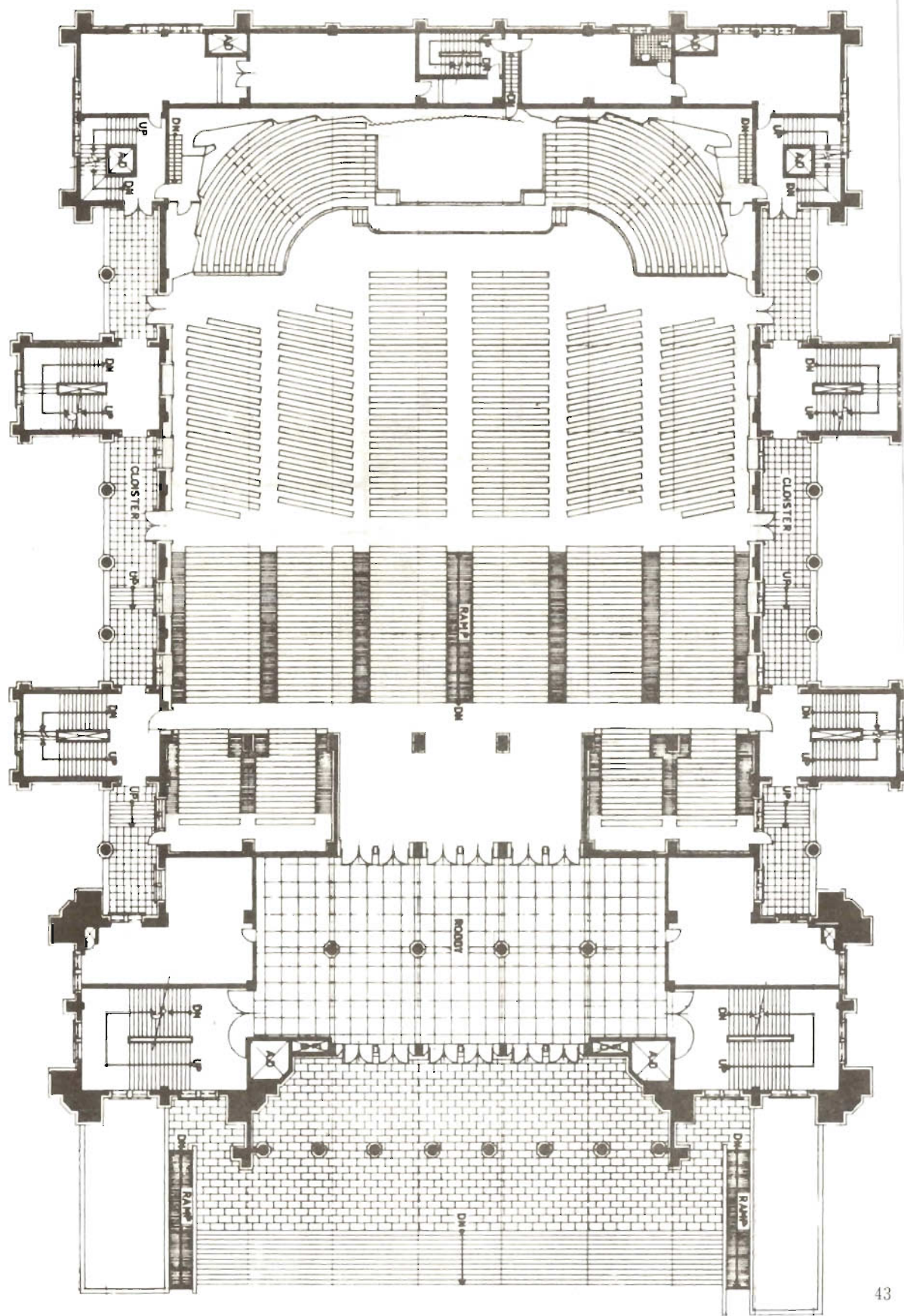


소석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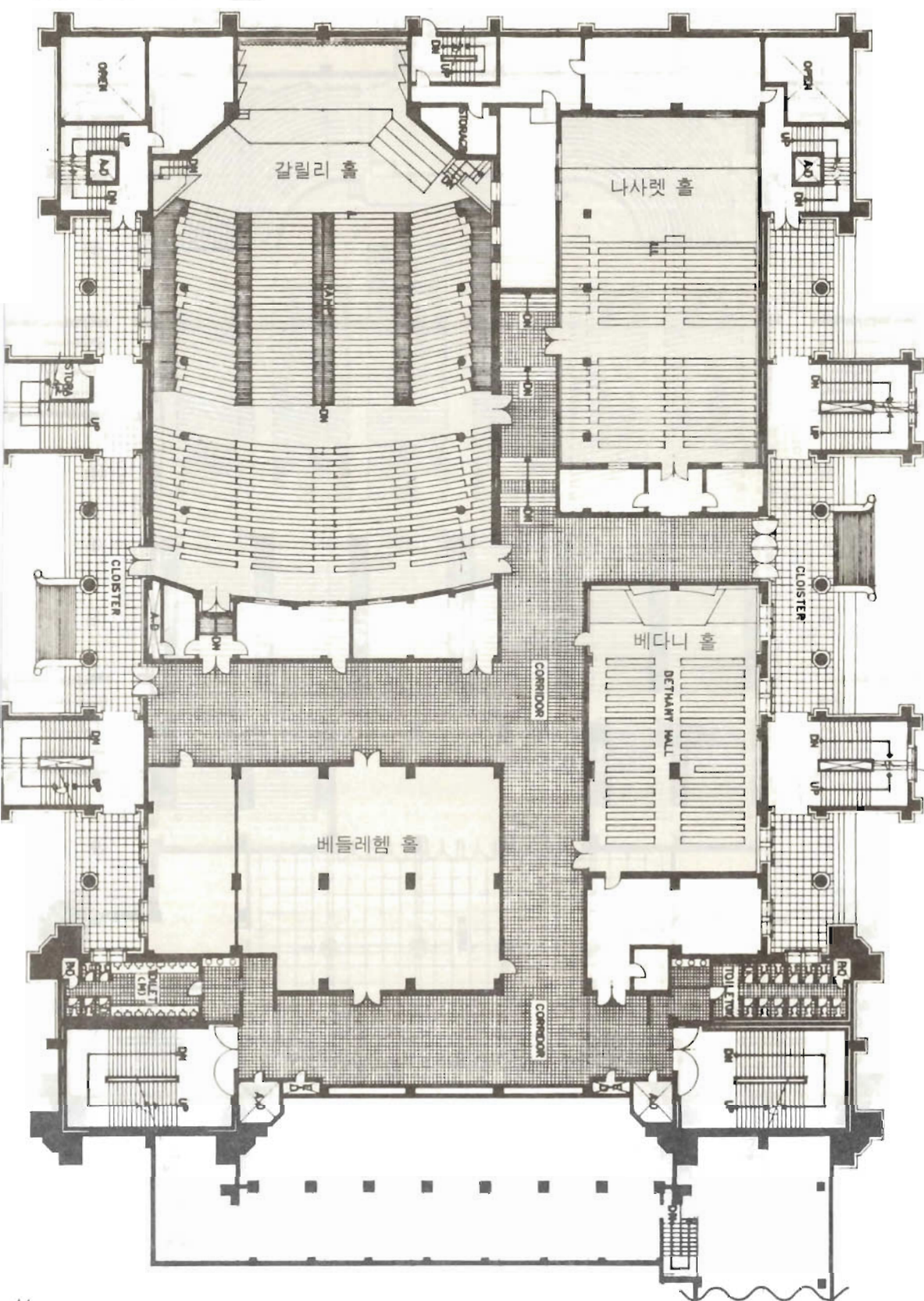


선교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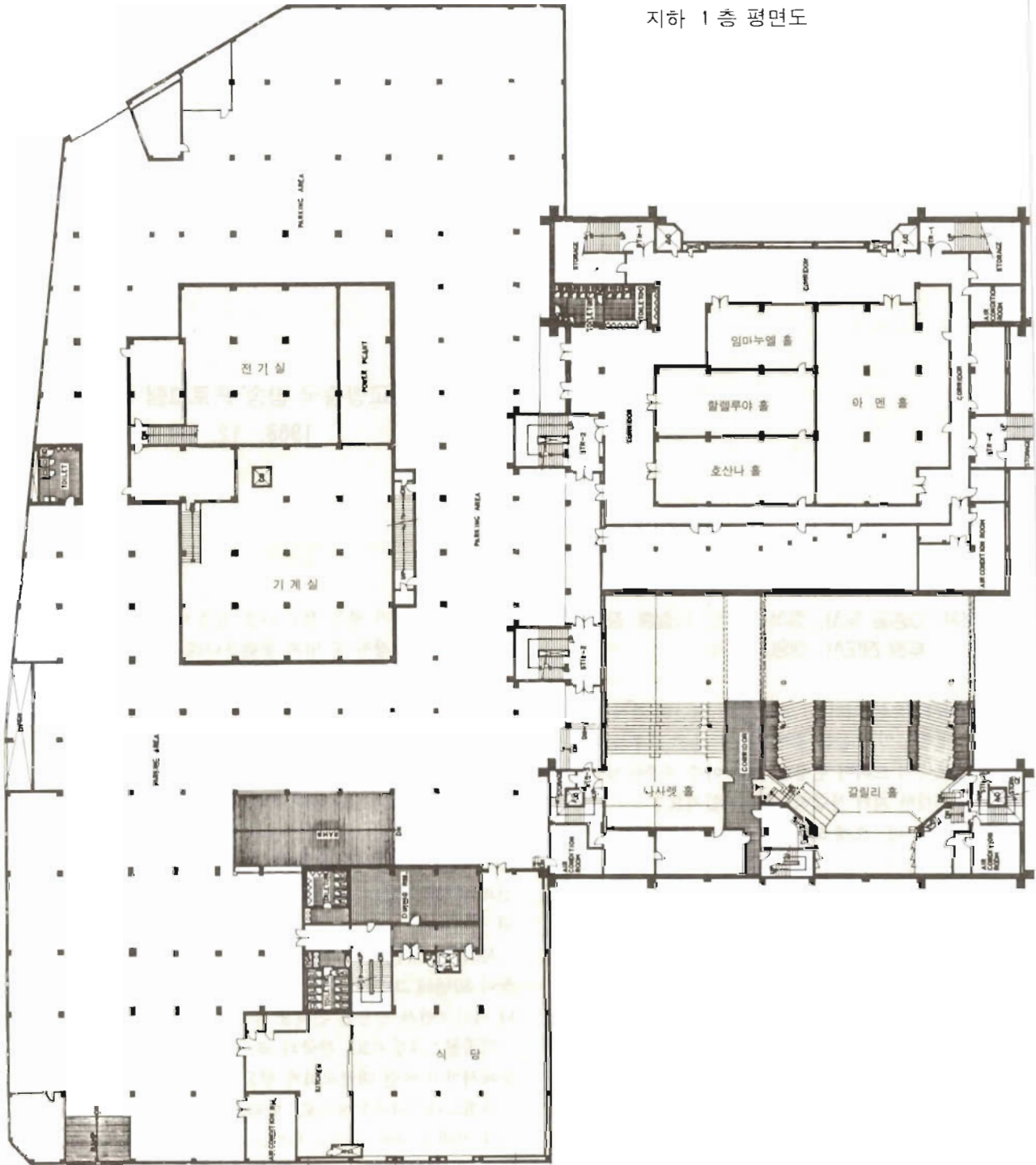




본당 1층 평면도



지하 1 층 평면도



파출부로 선금받아

기독교방송국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1988. 12. 20 오후 1시

참석자 : 이종윤 목사, 최석주 장로, 박철훈 장로, 이두란 전도사, 한영지 집사

사회자 : 오늘 여러분, 바쁘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12월20일 오늘은 충현교회가 많은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속에 드디어 헌당을 하는 아주 소중한 날인데 건축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이종윤 : 예, 오래 되었습니다. 착공한 지 8년8개월 되었습니다.

사회자 : 서울 강남에 언덕이 많습시다만 역삼동 언덕위에 우뚝 선 충현교회를 지나면서 보면 아주 뿌듯하리만큼 아름다운 석조 성전이 우뚝 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8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요?

이종윤 : 충현교회가 35년 전에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감창인 목사님의 의해서 18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세가 확장되고 또 세계교회를 향해서 책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세계 선교의 센터를 감당할 자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20년 전에 대지를 구입하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남이 개발이 아직 발표되기 전이라 말죽거리 과수원과 그 논바닥이 있는 아주 먼 곳, 서울

도 아닌 곳에다가 땅을 잡고 터를 잡을 때에 아무도 그곳에 서울이 확장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비전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결심을 하실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 김형원 원로 목사님께서 이 일을 기도 속에서 결심을 하시고 숭한 반대도 있었지만 당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순종으로 따라 주시고 교인들이 기도로 뒷받침해 주셔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눈물의 집이고 기도 덩어리이고 성도들의 정성 덩어리인지라 하나의 돌집으로 볼 수 만은 없는 집, 비전과 감사와 책임이 응어리진 집으로 오늘 헌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자 : 그런데 20년전에 그 자리를 쳐다 보던 교인들이 80년에 그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떠날때는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기뻐했었습니다.

이종윤 : 그렇지요. 한국의 교계 뿐아니라 온 일간 신문에서까지 이런 대형교회가 필요하냐? 또 저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구동성으로, 안팎으로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가해질 때에 그래도 우리는 앞만 보고 계속 전진해 왔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의 감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자 : 건축에 앞장을 서셨던 최석주 장로님께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참 속이 많이 상하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많이 겪었을텐데 드디어 하나님께 헌당하는 오늘 남다른 감회와 간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헌당하는 오늘 참 감사와 감격 이런 것들이 벅차게 느껴집니다. 1, 2 차 공사는 그런대로 비교적 무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 차 공사가 마친 다음에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지고 있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성전을 팔아서 그것을 이쪽으로 메꾸려고 했는데 매각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인들은 자꾸 실망하게 되고 건축헌금은 힘을 쓰지만 그리 많이 나오질 않고 알아야 할 부채는 크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 우리들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고 또 건축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온 성도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특별 집회도 하고 새벽기도회도 더 열심히 모이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성전을 매각할 수가 있었고 교인들이 힘써서 바치기 시작하면서 3 차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저도 그 동네 사는데 몇년을 그 언덕을 넘어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부는 관심 밖인데 그 뽕족하게 올라가다 못 올라가고 엉성한 골격만 보았을 때 빨리 좀 뽕족하게 예쁘게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느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동으로 장식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뭐가 되어가는구나 했지요.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 그 속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준용: 제가 부임을 한 지난 4 월달만 해도 엄청난 액수인 30 억이 소용되는 때였습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같이만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흥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자고 해서 6 월에 흥해작전이라고 하는 특별작전을 개시했습니다. 40 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매일 3,000명에서 7,000명까지 모였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별도 헌금을 하는 일도 없이 순전히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치는 새벽집

회를 40 일 진행한 뒤 8 월에는 24 시간 계속 기도하는, 교회의 불을 안끄는 작전인 여리고 작전을 속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므로 큰 헌금을 누가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은 부채가 없이 예배당을 헌당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헌당을 하게된 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파출부로 일한 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가 하면 자녀의 백일반지, 자신의 결혼반지, 전부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전셋방에 살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8 년을 주택부금을 붓던 것을 해약하고 들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들 치료비로 이웃에서 거두어 준 50 만원을 물면서 하나님께 바친 가난한 어머니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딸의 혼수로 5 년전부터 준비했던 반지까지 들고 와서 드릴 것이 더 없어 안타까와 하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우리 교역자님들이 생활비 전부를 몽땅 바치고 장로님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두달 생활비 전부를 바쳤습니다.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회의를 열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회의를 열면서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는데 교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교회가 서로 그 은혜를 주체를 못한 정도로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차고 교회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공사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지난 몇개월을 생각해 보면 흥해작전과 여리고 작전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10 여년의 공사를 마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그러니 앞장선 몇몇분들이 하신게 아니라 온 교우가 다함께 동참을 했기 때문에 구석구석 치다 볼때마다 교우들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앞일을 계산하는 것처럼 미련한게 없다는 것을 이런 때마다 느끼고 깨닫습니다. 재정을 맡으셨던 박철훈 장로님, 힘이 빠져 보이시는데 아주 시달려서 그러십니까?

박철훈: 아닙니다. 당시 어려운 때에 장로님들이 집문권까지 은행에 맡겨놓은 피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 아름다운 성전이 단 시간에 건축되었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이 듭니다. 그렇게 중단했던 것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이 보았을 때 중단했구나 했을 때에 우리 기도는 너무도 뜨거워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창구에 앉아서 건축 헌금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나이가 많은 여사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혼 반지가 얼마나 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 갖다 바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보석이라는 것이 살때는 비싸지만 팔 때는 많은 값을 못 받습니다. 어떤 때에는 너무나 안스러워 바치는 정성이 하나님께 인정되었으니 이것은 도로 가져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사회자: 순조롭게 되지 않고 오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셨는데 박장로님 개인적으로 8년동안 어려운 건축의 일을 맡아 오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 지켜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철훈: 제가 교회에 나와서 계속 건축하면서 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집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건축 끝나는 시간까지만 교회에 와주면 열심히 봉사를 하겠다고. 제가 없는 동안에 제 사업이 잘 안되거나 어려운 일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전보다 더욱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마음에 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건축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 참으로 대단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크긴 큰데,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정말 얼마나 큰 교회인가, 어떤 규모인가, 또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알고 싶을텐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훈: 대지가 6,432 평으로 지하는 전부 1, 2 층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본당과 교육관, 선교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건평은 전부 합하면 11,400여평 됩니다. 본당은 석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돌을 외국에서라도 수입해다가 좋은 것으로 짓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를 한번 돌면서 전부 조사해 보니까 우리 나라의 화강암이 세계적인 돌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돌은 우리가 지금 붙인 가평석이었습니다. 강하고 회고 철분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좋은 돌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는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건축 양식은 고딕식으로 독일의 쾰른 성당의 양식을 많이 뒀습니다. 외부의 돌과 내부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 또 음향시설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국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었고 좌석은 7,200석 정도 됩니다.

사회자: 당회장 목사님께서 지난 4월에 부임하시어 첫 설교를 하실 때에 대단히 송구한 말씀이지만 너무 훌륭한 교회라서, 감동이 앞서서 후들후들 떨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종윤: 설교를 사람앞에서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개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힘들어 하시지요. 예배당의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보다 훨씬 크고 또 불란서의 노틀담 사원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조건물로는 개신교 예배당으로는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큰 예배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 강단에 서시는 분들은 얼른 청중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이두란 전도사님은 충현교회에 봉직하신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이두란: 65년에 왔으니깐 24년 되었습니다. 65세로 이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퇴임식을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시게 되었군요. 24년이 되었으면 충현교회 역사의 2/3를 함께 해 오셨는데 24년 전 처음 전도사로 부임하셨을 때, 그리고 지금 반백이 되어 퇴임을 앞두고 아마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느낌의 교차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두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무엇보다 말씀 드려야 할지,

교회가 날로 부흥해서 너무 비좁자 어느날 김창인 목사님께서 갑자기 강남에 가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제직회에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강남이 어딘지, 말죽거리가 어딘지, 땅을 보러 가니까 야산이고 집도 하나도 없고 전부 쑥대밭이고 논이었습니다. 어

후, 우리 목사님 너무하시다. 여기에 교회를 옮기면 교인들이 의정부나 강북에서 어떻게 오겠냐하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항상 내다보는 눈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았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에 이곳에 예배당을 세울거다 하고 믿어버렸습니다. 건축이 시작되자 온 교인이 헌금을 바치기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어떤 성도는 남의 집 가정부로 가서 1, 2년 선불을 받아 교회에 바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회자: 저는 오늘 너무 감동하여 방송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남의집 과출부로 가서 선금 받아서 교회에 헌납한 그 교인은 아마 헌당하는 오늘 교회밖 골목길서부터 신발 벗어 드시고 마치 출애굽한 모세 일행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크게 키스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재현할 것 같습니다. 차마 교회마당 자기 발로 밟지 못하는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종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교인들이 어려운 중에 있는데 교회가 강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총현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세금 거두어 들이는 식으로 예배당을 짓는다고 비난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자: 평신도로 유일하게 나오신 한영자 집사님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한영자: 저는 여기 올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영광입니다. 오늘 헌당을 앞에 놓고 보니 과연 우리가 정성을 다바쳤나 하는 후회스러움도 생깁니다. 십이삼년전, 그때는 유류파동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저는 신혼이었는데 남편이 월급을 조금 받아오니 시부모님 모시고 참 어려웠지요. 그래서 3년제 직금을 들어 매달 건축헌금을 부어나갈 때 그 가슴 뿌듯함이란 참 겪어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가실 것입니다. 직금을 타서 하나님께 바친 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아빠와 상의해서 이층을 세 놓아서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었던 동시에 그 이사오신 분을 전

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영광을 돌리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또 저도 여자지만 우리 여자들은 귀금속들을 좋아하는데 우리교회 여성도들은 너도 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것들을 다 바쳐서 우리 교회에는 아마 귀금속을 가진 여성도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목사님, 이제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제일가는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은 결코 어떤 상징이 아니라 참으로 생산적이고 참으로 구령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장이 되어야겠는데 새성전을 헌당하시면서 총현교회의 향후 10년 혹은 100년의 비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종윤: 총현교회는 총현교회 성도만의 교회가 아니고 한국교회 100년사의 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회 교회는 3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 선교, 구제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의 하나의 관심의 대상 내지는 영향력있는 교회로 부상이 되었는데 세계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세계교회 목회자 재훈련 프로그램을 감당해야 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서양의 교회들은 이미 석양을 향해서 넘어가고 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교회는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상태이고 또 다른 모든 대륙의 교회들이 한국을 향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이때 세계의 목회자들을 초청해다가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열심을 그들에게 바로 주입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그 교회가 갱신되고 그 교회가 살아날 때에 우리 한국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한가지는 구제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향해서 향후 교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를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실을 기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 민족교회를 향도하고 세계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총현교회는 이제 총현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향하는 등잔불로 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지속되기를…”

70세 정년으로 은퇴한 이창업 장로

평안북도 신의주가 고향이신 이창업장로를 만나 은퇴에 임하는 소감을 알아보기로 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918년 3월 1 일생입니다.(만70세).

장로 장립은 몇년도에 받으셨는지요?

-1980년 5월에 장립받았으니 약 9년된 것 같습니다.

장로로 재직중 봉사하신 부서는 어디신가요?

-동산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건축위원 그리고 해외 복음선교회(세계선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장로 재직중 기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끄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 책임을 감당못하다가 감당했다고 스스로 느꼈을 때 기뻐했습니다.

마음 괴로웠던 일이 있었던가요?

-미국으로 이민갔다가 다시 온 일입니다.

제가 이민간다고 할때 장로님들이 청평에서 송별회까지 해 주셨는데, 그 때 고맙다는 인사를 했을 뿐, 막중한 새에매당 건축의 책임도 감당못하고 떠나게 된 것,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귀국하게 되었는데도 모르지요.

장로님의 자재분을 소개해 보실까요?

-2남 3녀입니다.

큰아들과 큰딸은 서울에 있고, 나머지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충현교회는 언제부터 출석하시게 되었는데지요?

-1963년부터이니 약 25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하시는 사업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성경구절과 찬송을 소개하신다면?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며 찬송은 460장, 278 장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겸손하라.

이제 명예장로가 되시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싶습니다.

후배 당회원(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은?

-사랑으로 화합하고 교회를 잘 섬겼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충현교회는 어떻게 부흥성장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며 힘닿는 데까지 헌신생활을 철저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신앙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 집안은 미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1947년도에 월남했으며, 누이동생이 먼저 예수를 믿었고, 저희 집사람이 시집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6·25 사변 중 생활이 어려워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3년 후 서울 수복과 더불어 환도하여 정착과 동시에 어머님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들 집이 교회당 몰타리 내에 있는 관계로 저와 식구와 함께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누이동생의 권유로 살던 집을 교회에 헌납하고, 충현교회로 등록했는데, 그때가 196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보람 있었던 일은?

-경로대학 신설할 때 봉사한 일이 보람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은?

-시원 섭섭합니다.

그동안 봉사한다고 하면서 책임 감당못한 것 송구스럽고, 65세 정년을 주장한 제가 이제 떠나게 되니 시원합니다.

젊은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대담/손경수 장로)

“은퇴후 일할 수 있는 기회준 것 너무 감사해...”

정년퇴직한 이두란전도사

충현교회 부흥발전과 협력을 같이해 온 이두란전도사가 88년 12월30일 부로 헌직(전도사 직무)에서 은퇴하게 되었다.

23년 10개월 동안 목회보조에 심혈을 기울이신 이두란전도사를 만나 그 동안의 우리들의 궁금증을 알아보기로 했다.

연세는 어떻게 되시지요?

- 1923년생이니가 만 65 세가 됩니다.

고향은 어디신지요?

- 경북 철곡군 철곡면 읍내리입니다.

충현교회엔 언제 부임을 하셨는지요?

- 1965년 1월26일로 기억됩니다.

몇년 동안 봉사하셨나요?

- 23년 10개월입니다.

전도사로서 소명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 제가 32세 되던 해 정월 초 이틀날 대구 성복교회 전도사로 부임한 때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임직을 하고 있는 동안 보람 있었던 일이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되는 모습을 볼 때라든가 미션·우상 단지를 다 부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집사·권사 등 직분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운명예배까지 드린 성도가 다시 건강이 되살아나 교회봉사에 헌신하는 것을 볼 때에 보람을 느낍니다.

마음이 아팠다거나 괴로웠던 일은?

- 본교회에 출석을 잘하다가 이단교파로 넘어갈 때 제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괴로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한동안 질병중에 고생하셨는데 어떤 병이었으며, 지금은 건강 하신지요?

- 지난 79년 11월 30일 새해 제직명단 후보를 뽑느라고 난로없는 썰렁한 방에서 식사도 거르고 작업을 하다가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식중독 걸린 적이 있어 평소 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다보니, 소화기능이 더욱 악화된데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죽도 잘 넘어가지 않는 최악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사실을 전하고 약20일간 휴가를 얻어 기도원에 가 1주일간 금식기도도 하고, 또 메디칼센터,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종합진찰을 해보니 신경성 심장, 신장병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병원 처방의 약을 계속 복용했지만 별다른 효과도 없었고, 어지럽고, 소화불량 증세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진유은사의 축복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어 83년 가을부터 대심방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은퇴하면 어떤 봉사를 계속하게 되시는지요?

- 교회가 상담실의 책임을 맡겨 주셨으니 이 일에 전념할 따름입니다.

상담실에서 하는 일은 대개 어떤 것이지요?

- 우리 교인들의 신앙상담입니다.

결혼문제를 비롯하여 제사문제, 십일조 헌금등에 관한 내용과,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갈등, 고민의 문제를 상담해 오면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교회 교인들의 상담도 가끔 있습니다.

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성경구절과 찬송은 무엇인지요?

- 모두가 다 좋지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6~18) 이며, 찬송은 '내 영혼에 햇빛비취니' (488장)입니다.

신앙생활중 누구의 감동과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 저희 부모님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저희 형제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를 출석케 되었는데, 외국인 여자 선교사와 주일학교 시절 담임을 맡았던 신 선생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충현교회에서 신앙과 사역에 영향을 미친 교역자는 누구신지요?

- 원로 김창인 목사님 밑에서 23년을 일하면서 신앙의 확고한 기반을 다졌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위임 이종운 목사님 오신 후로는 또 목회의 새로운 방법과 지혜를 얻게 되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은퇴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얘기해 주시지요?

-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병들었을 때, 죽었으면 새예배당 헌당도 못보고 또 어머니가 생존해 계셔 불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주시고 주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은퇴후에도 쉬지않고 교회가 상담실 운영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것,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가족관계를 알고 싶은데요?

- 형제들만 있습니다.

후배교역자 (특히 여전도사)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

- 여전도사는 병원조직으로 비유하면 간호원과 같은 입장입니다.

목사님이 의사라면 간호원은 수술에 필요한 각종수술기구, 붕대및 약을 준비하여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입니다.

이름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되, 뒤에서 소리없이 뒷바라지를 잘 해 교회부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늘 교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가정의 어머니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충현의 성도들에게 그동안 못다한 얘기 있으면 이번 기회에 속 시원히 말씀해 보시지요?

- 예수 잘 믿어야지요.

그리고 교인간의 금전거래 조심하고, 전도생활 잘하고, 특히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손경수 장로)

남은 여생 몸바쳐

김 선 미

(집사 · 13교구)

제가 1980년도에 주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십년 전에 지은 죄를 환상으로 하나 하나 보이시며 회개를 시키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여 50평생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와 남은 여생을 몸바쳐 마음바쳐 생명 끝날 때까지 충성하겠다고 열심으로 기도하였더니 84년 7월부터 경상북도 청송 제1감호소에 전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3범부터 27범까지 중형범들이 있어 세상에 나오면 또 범죄할 우려가 있다고 감호 7-10년을 받고 있는 격리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희망도 소망도 없고 사랑에 메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 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평양에서 피난을 때 생후 3개월된 큰 딸을 전도사를 만들어 청송 감호소로 보낸 것입니다.

제 딸은 14년 전부터 심장 판막증을 앓게 되었는데 H권자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병고침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칼빈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년 후에 다시 악화되어 누어 자지를 못하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신학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84년 12월 어느날 밤에 자다가 갑자기 저혈압이 되어 얼굴은 백지가 되고 눈은 위로 올라가고 파란 입은 귀옆으로 돌아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빈사상태에 있는 딸을 껴안고 간절하게 거의 한시간쯤 정신없이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 기적을 보여 주시었습니다. 눈도 입도 바로 돌아오고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신 불수가 되어 오른쪽 팔다리를 못 썼습니다.

저는 낙심치 않고 고쳐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열흘이 못되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85년도에 또 재발이 되어 몇개월 살 수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수술도 가망이 없어 저는 청송 감호자들에게 기도 부탁의 전화를 했습니다. 감호자들은 전도사를 위하여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육신은 갇혀 있어도 복음으로 변화된 그들의 기도는 가증되지 않은 순수한 기도였습니다. 죄 많은 우리는 왜 안 데려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바쳐 고생하시는 우리 전도사의 병은 왜 안 고쳐 주시느냐고 애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6개월 못 간다는 생명을 2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87년 12월에 재발하여 응급실에서 산소 호흡기의 힘으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심장에는 물이 차고 혈압은 20으로 내려가고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속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로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나 않나 하는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뜻이 계셔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더 큰 연단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딸은 심장이 칼로 난도질하듯 아파서 견딜 수 없어 “주님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할 때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줄 아느냐. 내가 데려가야 죽는다” 주님의 음성에 깜짝 놀라 병원으로 급히 가서 밤 12시에 응급실에서 또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혈압은 20이고 심장판막은 4개에서 3개가 망가져서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믿음으로 모험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계획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송장로님께서 영광과 과장님으로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는 중에 더욱 감사한 것은 매일 병실에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수술하는 아침에도 딸은 하늘나라 갈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초조해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받고 마음이 담대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순하고도 간절한 기도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였고 담대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게 하였습니다.

수술 후의 말할 수 없는 고통도 모른채 산소 호흡기로 숨을 연장하며 삼일 동안 잠을 잤습니다. 참 기적입니다.



청송 감호소에서는 김혜순 전도사가 소천하면 감호소 앞산에 장례하겠다고 의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전도사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는 앉아서 자면서도 청송 감호자 생일 축하 예배를 5년간 한달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한 자리에서 생일 축하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감호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1,000여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생명 바치어 사랑을 안고 그들을 찾을 때 완악한 마음들이 변하여 양같이 순하게 변합니다. 감호자들은 자기 집에도 좀 가서 전도해 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보내 오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선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감호자들과 함께 생일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순서로 성경 퀴즈, 성가경연대회, 5분 설교, 성경 암송 대회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들을 받아 주는 사회 풍토가 너무 아쉽습니다.

출감 후에도 이들의 실 땅은 없습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출감하여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시라고.

주님께서서는 꼭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저는 갇힌 자, 소외된 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늘 다짐합니다. 이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알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충현교회 여전도 연합회에서는 4년 동안 큰 힘이 되어 주셨고 교회에서는 버스를 계속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 오장로님, 마장로님도 많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청송 세1 감호소, 제2 감호소의 여사(女舍)와 김철 소년교도소의 매월 생일 축하 예배와 무기징역을 받은 분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천국 복음 확장 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치아(齒牙) 건강”

엄 필 성
(장로·중등부 부장)

건강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며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음식을 잘 먹고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것도 건강의 필요조건이라 하겠읍니다.

소화기능은 위(胃)와 장(腸)에 있지만 이 소화기능을 효과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치아의 역할을 들 수 있습니다. 치아가 없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저작기능(咀嚼機能)에 장애가 되고 저작이 불완전하면 위에 부담을 주어 소화장애가 생겨 건강에 해(害)를 줍니다.

치아의 질병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충치(蟲齒)입니다. 구강내의 불결함과 음식물의 당분으로 치질의 부식과 치아 자체의 파괴로 충치가 생깁니다. 초기에는 아무 자각증상이 없으나 충치가 커지고 깊어져 범람질, 치수까지 진행됨에 따라 한냉과 온도에 예민하고 더 진행됨에 따라 압박감, 예리한 통증이 생겨 약을 복용케 됩니다.

치아는 다른 신체기관과는 달리 재생기능이 없으므로 빨리 치료하여 치아 한개라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초기의 충치는 자각증상, 통증이 없어 방치하며 무관심하기 쉬우나 이때 꼭 치료해야 합니다. 조기치료하면 완전치료, 무통치료, 치료비 절약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이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치료의 방법도 복잡다양하여 치료비용도 많아지고 완전치로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치(風齒), (치아주위조직염, 치조농후)로 고생합니다. 치아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그 주위조직의 염증으로 잇몸이 붓고 충혈되고 고름이 생기고 치아의 동요가 있고 아픔을 느낍니다. 원인은 구강내 불결, 올바르지 않은 이닦기로 치석(프라그)이 생기고 또 많은 세균의 침입으로 발병합니다. 풍치는 예방과 조기치료가 절대적이며 병이 진행됨을 보아 수술도 해야 합니다. 약으로 치료가 안되며 한 두번의 치료보다 정기적으로 계속 치료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입안에서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칫솔질을 철저히 하여 구강내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잇몸에 염증을 치료하며 충치치료, 지치의(사랑 이) 유무, 오래된 보철물 제거 및 새로 시술해야 합니다. 소화기관의 이상 유무도 검진해야 합니다.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두번 이상 이를 닦아 충치와 잇몸을 보호해야 하며 특히 식후나 취침전에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닦는 방법도 올바르게 상하로 가볍게 하며 칫솔도 좋은 것을 택하여야 합니다. 너무 강하고 뾰뾰해 치아나 잇몸에 무리가 가셔도 안되며 너무 부드러워서 닦는 효과가 없어도 안됩니다.

1년에 1~2회 꼭 정기적 검진을 받아 충치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해야 하며 치석제거(스케링)도 하여 충치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은 방학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 지병이 있을 때에는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임산부나 산모도 꼭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를 피하거나 아픔을 참거나 약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이 기간이 여자들의 치아와 잇몸이 나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임산부의 건강과 영양은 태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유치(어린이 치아)도 치료해야 합니다. 20개의 유치는 영구치와 전부 교체되며 유치의 관리상태, 치료여부는 영구치에 영향을 주며 치아 교정도 요하게 됩니다.

결손치(발치한 치아)에는 보철이나 의치를 꼭 해야 저작기능의 회복도 되고 다른 치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꼭 병원에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며 무면허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치아는 5복종의 하나라고 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방법으로 치아를 관리할 때 좋고 건전한 그리고 충치가 없는 치아를 보존하게 될 것이며 우리들의 건강도 보장받아 더욱 생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성화」(聖化, SANCTIFICATION)

이양우

(목사 · 10교구 담당)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신물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되며, 비록 언약하여 그의 일생동안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점차적으로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된다.

구약에서는「성화」란 히브리 원어로 ‘자르다’ 혹은 ‘성별되다’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원래 거룩이란 하나님의 속성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특히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도 거룩해져야 한다.

성화(聖化)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1) 성화는 중생에서 심어진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고 그 거룩한 실천이 증대되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나 인간이 그 사역에 협력해야 된다 (살전 5:23, 히 13:20).

(2) 성화의 소극적인 면은 죄에서 온 인간성의 불결과 부패가 점진적으로 약화, 제거되는 것이다 (롬 6:6, 갈 5:24).

(3) 성화는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적변화 뿐만 아니라, 외적인 생활의 변화까지 수반하게 되는 전인적(全人的)인 것이다 (롬 6:12, 고후 5:17).

(4) 성화는 모든 인간의 부분에 영향을 주지만 현재에 있어서의 신자의 영적 성장은 정도에 있어서 불완전한 채로 남아 있게 된다.

왜냐하면 신자는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왕상 8:46, 약 3:2).

그러므로 ‘성화’(聖化, SANCTIFICATION)란 성령께서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진본성(眞本性)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우시며, 계속적인 사역이며 인간이 그 사역에 협력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新約概論

한 용 관

(전도사 · 사랑부 부지도)

新約概論



한국 교회가 많은 종류의 신학 서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신학개론에 관한 책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고 그나마도 내용이 그렇게 충실치 못함을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다.

특히 공관복음의 기원 문제에 관하여서는 이렇다할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있었다. 복음주의 학자들의 대부분도 마가복음이 마태나 누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이것은 증명되지 못한 자료를 인정하는데서 나온 이론이었다.

그러나 본서의 필자 이중운 목사는 초대 교회 교부들의 외적 증거와 본문 분석을 통한 내적 증거를 근거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것임을 주장한다.

그 내적 증거로는

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더 원시적인 사상들이 들어 있으며,

② 마태복음에 나타난 유대주의적 경향을 보아 마가복음이 먼저 씌어진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③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며

④ 마가복음에서 마태와 누가복음의 이문융합(異文融合: conflation)된 것이 많이 발견된다.

또한 본서는 위와같은 학적 깊이와 아울러 신약 성경 27권에 관한 각론을 세부적으로 잘 다뤄 놓았기에 신약을 더욱 더 잘 알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깊어가는 이 거울에 꼭 한 번 읽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다.

교회소식



■ 성전 헌당 특별감사 성회

교회는 착공한 지(대지 매입은 18년 전) 8년8개월만에 헌당을 하게된 은혜를 감사하여 헌당감사 특별성회를 열었다.

주제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딤후3:15)였고 초대 공군 군종감을 역임하시고 현재 미국 나성동양선교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임동신 목사님을 감사로 모셨으며 '개척자의 정신' '십자가의 도' '위대한 생애' '세계선교와 한국교회' 등 4권의 저녁설교와 '군계 잡아라' '법제와 교회' '심는 대로 거둔다' 등 3권의 새벽설교가 있었다.

연인원은 저녁집회에 8,850명, 새벽집회에 4,800여명이 참여하여 이 시대를 한, 충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 소련 아르메니아 지진피해 의연금

지난 12월20일 성전을 헌당하면서 "우리만 잘먹고 잘살아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불우한 이웃을 늘 생각하며 그들을 돌아볼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늘 설교하시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온 교우가 헌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의 표시로 드린 현금 전액(2천43만8천원)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르메니아 이재민에게 전달키로 하고 이종운 위임 목사님께서 임광식장로, 박철훈장로와 함께 동아일보 김성열사장에게탁했다.



■ 제2회 교구별 찬양대회

6월23일에 제1회 교구별 찬양대회를 가진 이후 약6개월만인 12월17일(토) 오후3시에 제2회 찬양대회를 가졌다. 제1회 찬양대회는 구역 활성

화와 교구 친교를 위하여 많은 수의 참가를 목적인 바 각 교구에서 250-350명, 연인원 3,000여명의 대원이 참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번 찬양대회는 성전 헌당 감사 행사로 온 교우가 감사와 찬양을 성전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대회로 모였다. 이 대회는 성전 헌당 감사 성회와 맞먹는 대회로서 수준 높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 기 위하여 30-50명의 우수한 대원들로 구성하였던 바 전 교구에서 약 700여명이 참여하여 참으로 수준 높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었다. 18일 주일 저녁 성회이 이 대회에 참여했던 대원 400여명이 양쪽 찬양대석을 메워 아름답고 황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었다.

■ 원로 목사 동정

김창원 원로목사님은 부산 지방(10. 31-11. 3), 일본 지방(11. 7-11. 14), 대구 서문교회(11. 15-11. 18), 수원 명성교회(11. 21-11. 23), 상계동 동일로 교회(12. 5-12. 7), 전주, 부산지방(12. 12-12. 16)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다.

■ 충현 제자훈련 성료

직분자들의 의식 개혁, 가치관 확립, 영성 훈련을 위한 제1회 제자훈련이 9월8일에 시작되어 12월3일에 종료되었다. 3개월에 걸쳐 실시된 이 훈련은 총 3,124명이 수료하는 개가를 올렸고 본교회 뿐아니라 이웃 교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위임 목사님을 위시한 전 교역자로부터 주일학교 교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직분자가 참여한 이 훈련은 특히 89년에 임직할 집사 후보들에게는 직시타의 효과를 보았고 교회 활성화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3월에는 일반 성도를 위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앞으로 매년 1회 실시될 예정이다.

■ '89년 제직, 구역 일꾼 임명

교회는 지난 12월 4 일(주일) 2, 3, 4 부 예배시에 1989년도 제직 및 구역 일꾼 임명식을 가졌다. 89년도 제직 현황은 목사 12, 협동목사 2, 남·여전도사 18, 공로장로 5, 원로장로 3, 시무장로 74, 협동장로 7, 안수집사 57, 시무권사 545, 남·여서리집사 2,226 명 등 총 2,949명이다. 또한 구역 일꾼 현황은 교역자 20, 교구장 14, 지역장 78, 간사 40, 부지역장 467, 협력구역장 303, 구역장 704, 권찰 755명 등 총 2,381 명이다.

■ 교회학교 교사, 각부 찬양대원 임명

지난 12월 11일(주일) 대예배시 교회는 1989년도에 봉사할 교회학교 교사와 각부 찬양대원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받은 교회학교 교사수는 886명이며 부서별 수는 다음과 같다.

교회학교

영아부 42명, 유치부 67명, 유년부 7명, 초등부 72명, 소년부 73명, 중등부 79명, 고등부 56명, 대학부 19명, 청년1부 7명, 청년2부 7명, 장년1부 25명, 장년2부 37명, 장년3부 45명, 소망부 50명, 직전부 34명, 새가정부 17명, 새신자부 41명, 세례부, 24명, 사랑부 40명, 에바다부 32명, 탁아부 42명.

찬양대

가브리엘 81명, 임마누엘 92명, 헨드벨 30명, 시온 47명, 할렐루야 177명, 아멘 110명, 임마누엘 92명, 호산나 98명, 실로암 74명.

■ 충현 도서관 이전 확장 개관

충현 도서관은 신앙과 문화 유산을 계승 유지하고 이를 통한 교인들의 신앙 향상과 학문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일만 2 천여 권의 각종 종교 분야의 도서를 구비하고 있

며 약 100여석의 열람실을 갖추고 폐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 열람실을 신설, 성도들의 학문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도서관 확장 이전에 따른 새로운 열람 및 도서 대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열람 시간은 평일 10:00~18:00, 주일 09:00~18:30, 열람실(참고 열람실 포함)은 본 교인으로서 중등부 이상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은 대학부 이상으로 제한된다. 도서 대출은 도서 대출증을 교부받은 후 도서 대출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대출계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1권, 7일(일주)이며 기한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는 소정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으로 문의바람.



■ 충현 암송 성경 제작

이종윤 목사님께서 79년에 중공의 심양과 할빈을 방문하셨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한 성도가 라디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의 앞에는 다 헤어진 볼품없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한국에서 방송으로 천천히 읽어주는 성경을 연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베껴 쓴 것이었다. 목사님은 너무나 감동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헌당을 하기 전에 성경 몇 절씩 다 암송해야겠다는 생각하시고 88년 6월 30일에 제작 지시를 하셨다. 88년 8월 15일 새벽 기도회 후에 원로, 위임목사님을 선두로 기록에 들어갔다. 3 ~

5 절씩 배당된 성구를 암송하여 장로님 앞에서 확인을 받은 후 기록연습실에 와서 연습을 하고 기록실로 올라가 가운을 입고 정중히 기록했다. 동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12월 10일에 5, 820세대 6,143명이 기록을 마쳤다. 12월 20일에 제작을 완료하고 오후 6시 40분에 헌정되었다. 성경의 크기는 가로 39cm, 세로 54cm, 두께 15cm로 세계에서 단 한 권뿐인 책으로 35주년을 기념하여 350권을 만들어 세계 우수한 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추수감사절

교회는 추수 감사절 예배를 지난 11월 20일(주일) 4 부에 걸쳐 드리고 저녁 예배시에는 유치부와 특수교육부인 사랑부와 에바다부의 특송이 있었다.

해마다 보는 아기들의 재롱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발랄하고 깨끗한 모습이 보는이의 마음을 밝게 하였으며 사랑부의 학생과 교사가 손을 잡고 등단해 시원치 않은 발음으로 애써 찬양을 드릴 때는 성도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과 연민을 품게 했다.

에바다부의 수화찬양은 무관심의 나태를 책망받으며 우리 모두가 저들의 입이 되어주고 손발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결심도 갖게 하였다.



■ 성탄 전야 예배

오랫동안 성탄 전야 예배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드러지지 못하고 부서별로 드러졌으나 금년에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성탄을 축하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의 제목으로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설교가 있었고 기도전과 성경봉독 후 그리고 설교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지휘, 최시원교수, 오르간, 한형락선생)의 찬양이 있었다.

핸드벨 콰이어(지휘, 이미리선생)의 입장과 예배 후 10명의 썬타크로스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순서는 전야 예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 성탄 축하 예배

해마다 유·초·소년부에서는 성탄 축하 예배 순서를 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금년에도 좌익에 때문지 않은 맑고 고운 음성으로 아기 예수께 찬양의 예물을 드리었다.

또한 교사 연합찬양대의 찬양 순서도 이채로왔다.

■ 공로패 증정

88년말로 정년을 맞은 분들께 공로명예(원로)직으로 추대하여 패를 증정키로 했다.

정년을 맞은 분들은 교역자 1, 장로 1, 안수집사 3, 권사 20, 서리집사 2명 이상 27명이다.

■ 교육위원회 총회

지난 12월 22일(목) 오후 7시 소석관 307호실에서 교육위원회 총회가 있었다.

88년도 수고한 교육위원과 89년도 신임 교육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조직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교회학교 교과과정 및 교재 편찬 연구위원으로 이영덕교수, 오인택교수, 정규남목사, 윤용규목사, 김영구

목사, 김성운목사 등 여섯분을 당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하였다.

■ 성경 연구원 합동 수료식

지난 12월 11일(주일) 찬양 예배시에 제29기 교사 양성부, 제2기 찬양대원 양성부, 제1기 협력 구역장 실무교육, 주간 성경 공부반의 합동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기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는 교사 양성부 52명, 찬양대원 양성부 26명, 협력 구역장 실무교육 103명, 주간 성경 공부 124명 등 총 305 명이다. 교육위원회 성경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 양성부와 찬양대원 양성부는 총현교회에 등록된 만 20세 이상의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협력 구역장 실무교육은 현재 협력 구역장으로 임명된 자, 주간 성경공부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성도는 누구나(타교인 포함) 배울 수 있다. 다음 학기 성경 연구원의 개강은 89년 3월부터 시작이 된다.

■ 대학부 특강

지난 11월 13일(주일) 12시 30분에 소석관 514호실에서 이동주 교수의「그리스도와 회두교」라는 제목의 특강이 있었다.

■ 시와 찬양의 밤

직장전도교육부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11시 갈릴리움에서 '왕이신 예수'라는 주제의 시와 찬양의 밤을 가졌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마련된 이 잔치에서는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의 남창우 목사님의 설교에 이어 2편의 시낭송, 시간문 낭독, 살롬 선교단의 찬양과 남성 4중창, 여성 중창, 찬양대의 합창, 율동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3부에는 150 명이 한데 어울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

■ 고3을 위한 학부초 초청 기도회
고등부에서는 지난 12월 4일(주일) 오전 11시 소석관 507호 고등부실에서 대학 입시와 취직을 위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한 학부초 초청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3학년 선배들을 기도로 후원하기 위하여 모인 1·2학년 학생들과 고3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이 예배실을 꼭 메운 가운데 진행된 기도회는 최무길 장로의 사회, 남창우목사의 말씀선포, 송환창장로, 구명신전도사, 김태영집사, 졸업생대표와 재학생대표의 기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성탄 추리 점등 예배

지난 12월 7일(수) 수요일 I부 예배가 끝난 후, 본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지하철 역삼역에서 성탄 추리 점등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는 전도위원회 김정태 집사의 사회와 이양우목사의 설교로 역삼역직원들과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특별히 마리아 여전도회협의회 임원들은 특송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였다.

이날 추리점등과 아울러 승무원들에게 조출한 성탄 선물도 전달되었다.

■ 결식 학생 보조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강남지역 관내 결식학생 39명중 10명에게 식대를 보내었다.

■ 성탄절 특별 구제

교육, 선교, 구제의 세 기둥을 세우고 매진하는 교회는 성탄을 맞아 대외적으로도 구제사업을 전개하지만 교우중 극빈자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폈다. 대상은 극빈 노인, 장기 치료환자 중 극빈자, 생계 곤란 가정이다.

■ 신문 배달 소년, 소녀 초청 잔치

구제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목) 오후 5시 지하 식당에서 강남 지역 신문 배달 소년, 소녀 150명(조선일보 42명, 한국일보 20명, 동아일보 45명, 중앙일보 34명, 서울신문 9명)을 초청하여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를 겸한 이날 행사는 이종윤 목사님의 환영의 말씀과 오진국 장로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엄동철한을 대비한 파카 한 벌씩을 선물로 주었다.



■ 시립병원에 사랑의 주머니 전달

구제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동부, 서대문 시립병원에 사랑의 주머니 400개를 전달하였다.

■ 뽀엘 찻집 개점

'88, 12, 3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외로이 양로원에 계시는 불우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찬양대원의 신앙 향상을 위하여 아멘 찬양대에서는 뽀엘찻집을 개점했다.

교회 지하 소식당에서 개점된 이날 행사는 성황을 이루었고 목표액인 백만원의 초과 달성하였다.

아멘 찬양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송학교회(이용호목사 지무)를 배회지 원하고 있다.

■ 크로마하프, 창단을 위한 연습 시작

3월말, 창단을 위하여 크로마하프

연습이 시작되었다. 단원은 주로 마리아 여전도회원으로 구성되었고 약 80여 명이 연습에 임하고 있다. 창단 후에는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 전 찬송 인도를 맡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

시간 : A반 월·목 오전 10시 30분

B반 화·금 오전 10시 30분

C반 수(1부 예배 후)

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 베다니홀



■ 부 임

당회는 공식중임 3개 교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청빙하고 세계적인 자명을 감당키 위해 외국인 목사님 1인을 청빙하였다.



김광석 목사



송태근 목사



김해규 목사



마일수 목사

김광석 목사 : 1952. 3. 11일생, 고등부와 14교구 담임, 가족으로는 유미순 사모와 딸 사라, 아들 성현이 있다.

송태근 목사 : 1956. 4. 28일생, 직전부와 3교구 담임 가족은 최연희 사모가 있다.

김해규 목사 : 1956. 5. 31일생, 대학부와 1교구 담임, 가족은 이정숙 사모와 딸 사라가 있다.

■ 퇴 임

이성근목사 : 본 교회에서 7년을 묻서 선교사로 일하시고 1교구와 장년 2부를 맡아 수고하시던 목사님은 영안교회(암구정 2동 소재) 당회장으로 부임해 가셨다.

유국남목사 : 79년에 부임하셔서 세계선교회 지도와 3교구를 맡아 수고하시던 목사님은 유학 준비로 퇴임하셨다.

남창우목사 : 83년에 부임하셔서 고등부와 14교구를 맡아 수고하시던 목사님은 미국의 미시건주 리폼드 세미너리 대학유학으로 퇴임하시고 지난 12월 22일 오후 5시 비행기로 출국하셨다.

이동주교수 : 10월에 부임하여 대학 부 지도로 수고하시던 이동주 교수는 결혼으로 퇴임하셨다.

■ 김기정장로 정교회 회장 피선

본 교회 김 가정장로가 지난 11월 29일 오후 2시 흥천교회당에서 개최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전국 장로회 연합 총회에서 전국 42개 노회 6백여 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새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회장으로 선출된 김기정장로는 교단의 부흥과 발전의 일익을 담당키 위해 전국 교회 장로들의 뜨거운 협력을 당부한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1989년 각 위원회 임원 명단

당 회

당 회 장/이종윤
서 기/윤명식
부 서 기/이종국

기획실

실 장/최석주
부 실 장/이응선
서 기/서동석
기 획/하대선
행 정/윤명식
홍 보/김광신

예배위원회

위 원 장/김기정
부 위 원 장/김은호
지 도/김학진
일반예배/김은호
영어예배/정하우
성례예배/김방진
찬 양/노광현

교육위원회

위 원 장/오태희
부 위 원 장/김차생
지 도/윤용규
교회학교교육/김차생
특 수 교 육/이상현
장 학/이영새
성경연구원/조인재

성경연구원지도/이조웅
도 서 실/김원선

교회학교 제1분과

영 아 부
지 도/김연이
부 장/차신득
부 감/김상덕 김경희
유 치 부
지 도/정연희
부 장/정광호
부 감/이성원 장영저

교회학교 제2분과

유 년 부
지 도/김경성
부 장/윤성철
부 감/박미련 김순남
초 등 부
지 도/양창근
부 장/최성현
부 감/원응천 정옥남
소 년 부
지 도/김장근
부 장/노문환
부 감/박홍규 박정순

교회학교 제3분과

중 등 부
지 도/김성운
부 장/엄필성
부 감/황영일 지경애
고 등 부
지 도/김광석

부 장/최무길
부 감/임무천 김정자
대 학 부
지 도/김해규
부 장/이 훈
부 감/황의만 이인선

교회학교 제4분과

청 년 1 부
지 도/김익경
부 지 도/구명신
부 장/윤광일
부 감/양종섭 손명순
청 년 2 부
지 도/김준태
부 장/손경수
부 감/김환기 박영엽
장 년 1 부
지 도/김학진
부 장/김재명
부 감/김형선 김석운
장 년 2 부
지 도/이원길
부 장/윤인현
부 감/이하영 우순성
장 년 3 부
지 도/이세열
부 장/마성락
부 감/김여순 백죽심
소 망 부
지 도/김영규
부 지 도/김정순
부 장/장보용
부 감/장봉수 이의복

교회학교 제5분과
직 전 부
지 도/ 송태근
부 지 도/ 장혜순
부 장/ 박영식
부 감/ 이동명 공향조
새가정부
지 도/ 윤용규
부 지 도/ 정복인
부 장/ 박승준
부 감/ 이지결 박효지
새신자부
지 도/ 이양우
부 지 도/ 장영자
부 장/ 강순용
부 감/ 김대호 최난수
세례부
지 도/ 김동열
부 지 도/ 현정남
부 장/ 이창호
부 감/ 이갑재 이명자

교회학교 제6분과
사 랑 부
지 도/ 김정자
부 지 도/ 한용관
부 장/ 이종석
부 감/ 최차용 김상순
에바다부
지 도/ 임태주
부 장/ 박인세
부 감/ 고병국 김용섭
특수교육부
탁아부
지 도/ 유순화
부 장/ 정운석
부 감/ 최윤덕 민순애
살롬경로대학

지 도/ 최순복
부 장/ 송기홍
장애자조기교실
지 도/ 한용관
부 장/ 이상현
유치원
원 장/ 이종운
지 도/ 최명자
원 감/ 한영숙

교구위원회

위 원 장/ 우기진
부 위 원 장/ 손동운
지 도/ 이세열
시 기/ 강순용
회 계/ 김원선
1 교 구 장/ 오정현
2 교 구 장/ 김원선
3 교 구 장/ 오진국
4 교 구 장/ 이응신
5 교 구 장/ 이종국
6 교 구 장/ 강순용
7 교 구 장/ 강모용
8 교 구 장/ 박철훈
9 교 구 장/ 송기홍
10 교 구 장/ 강은원
11 교 구 장/ 김은호
12 교 구 장/ 김재명
13 교 구 장/ 이창호
14 교 구 장/ 마성락

교구담당교역자

1 교구 / 김해규 장영자
2 교구 / 김학진
3 교구 / 송태근 구명신
4 교구 / 김준태 임태주
5 교구 / 김장근 정복인

6 교구 / 김영구 김정순
7 교구 / 이원길 유순화
8 교구 / 김동열 김경성
9 교구 / 이세열 정연희
10 교구 / 이양우 김정자
11 교구 / 김익경 최명자
12 교구 / 김성운 최순복
13 교구 / 윤용규 장혜순
14 교구 / 김광석 현정남

교구간사

1 교구 / 김춘권 정창원 권 회
2 교구 / 김구형 고승균 최일춘
3 교구 / 김상규 김양자 안희정
4 교구 / 김달현 오순자
5 교구 / 김신후 진경애
6 교구 / 김기철 박종태
7 교구 / 송진국 신부근 조혜경
8 교구 / 이계홍 김태규 박종현
9 교구 / 김종연 임선령 김재순
10 교구 / 함철주 김영수 박천례
11 교구 / 정쾌명 윤병순
12 교구 / 박상준 서급자 김혜영
13 교구 / 마숙전 전용해 신계숙
14 교구 / 김점석 한영덕

전도위원회

위 원 장/ 윤종성
부 위 원 장/ 강은원
지 도/ 이양우
서 기/ 김종구 정재모
회 계/ 박문태
전 도/ 강은원
문 화/ 오정수
남전도연합회고문/ 김원선
여전도연합회고문/ 정하우
남·여전도회지도/ 이원길 최순복

바울 1 지회장/이규선
 바울 2 지회장/최차용
 바울 3 지회장/홍시오
 바울 4 지회장/이하영
 바울 5 지회장/이창업
 바울 6 지회장/이배근
 바울 7 지회장/임봉남
 바울 8 지회장/박춘봉
 바울 9 지회장/김종연
 바울 10 지회장/김용도
 바울 11 지회장/김여순
 바울 12 지회장/김인관
 바울 13 지회장/한일연
 바울 14 지회장/김점석
 디모테 1 지회장/최종시
 디모테 2 지회장/황영일
 디모테 3 지회장/김상규
 디모테 4 지회장/김정태
 디모테 5 지회장/김상덕
 디모테 6 지회장/김기철
 디모테 7 지회장/강봉수
 디모테 8 지회장/한송규
 디모테 9 지회장/김단용
 디모테 10 지회장/권영학
 디모테 11 지회장/전홍열
 디모테 12 지회장/박홍규
 디모테 13 지회장/손기현
 디모테 14 지회장/나희주
 한나 1 지회장/박옥식
 한나 2 지회장/정경자
 한나 3 지회장/민순애
 한나 4 지회장/방계운
 한나 5 지회장/여옥기
 한나 6 지회장/공향조
 한나 7 지회장/송명희
 한나 8 지회장/윤정덕
 한나 9 지회장/양숙란
 한나 10 지회장/지숙원

한나 11 지회장/서양순
 한나 12 지회장/신수옥
 한나 13 지회장/최봉숙
 한나 14 지회장/문명애
 에스더 1 지회장/박영엽
 에스더 2 지회장/엄숙현
 에스더 3 지회장/최규
 에스더 4 지회장/김순
 에스더 5 지회장/김석순
 에스더 6 지회장/어수덕
 에스더 7 지회장/이인숙
 에스더 8 지회장/권윤행
 에스더 9 지회장/염미숙
 에스더 10 지회장/임옥순
 에스더 11 지회장/윤수원
 에스더 12 지회장/박효지
 에스더 13 지회장/유호순
 에스더 14 지회장/이혜숙
 마리아 1 지회장/한광숙
 마리아 2 지회장/김영구
 마리아 3 지회장/한은주
 마리아 4 지회장/최숙경
 마리아 5 지회장/남양희
 마리아 6 지회장/안춘자
 마리아 7 지회장/석귀수
 마리아 8 지회장/이명숙
 마리아 9 지회장/한성옥
 마리아 10 지회장/김숙희
 마리아 11 지회장/조증선
 마리아 12 지회장/이영옥
 마리아 13 지회장/최경순
 마리아 14 지회장/정영희

세계선교회

총재/김창민
 회장/이종운
 부회장/이영세

지도/김준태
 부지도/김성식
 선교연구원부위원장/최명환
 선교연구원위원/조인제
 서기/김연근

구제위원회

위원장/오진국
 부위원장/최대원
 지도/김익경
 봉사/최대원
 구제/송기홍

재정위원회

위원장/임광식
 부위원장/박철훈
 재정/박철훈
 일반회계/김광남
 특별회계/최대원

행정위원회

위원장/이태규
 부위원장/조선근
 총무/조선근
 시설관리/오정현
 기도원/박치민
 동산/마성락
 차량/문홍구
 환경미화/김경철
 출판/송환창

감사

위원/김영개 박관영 송환창

교 우 동 정

새교우

역삼구역	남영선	개포구역	정정자	잠실구역	김규석	대치구역	김영희	거여구역	김진국
용인구역	이재윤	수원구역	민용기	잠실구역	박영옥	논현구역	성숙경	사근구역	송옥순
개포구역	원우현	사당구역	맹경자	자양구역	이원자	논현구역	이은희	역삼구역	안옥자
개포구역	이방숙	안양구역	윤수애	자양구역	송재훈	청담구역	여운희	청담구역	이미숙
개포구역	계광원	신림구역	안태희	행당구역	정성호	수원구역	김종오	삼전구역	김진식
개포구역	이정희	사당구역	추영희	논현구역	최노희	방배구역	박성진	개포구역	지성숙
논현구역	채동석	수택구역	신복순	신월구역	장현숙	반포구역	조주순	왕십리 ~	김복실
안산구역	이자연	신월구역	최경희	개봉구역	이훈희	봉천구역	김유원	역삼구역	임기자
신림구역	김제성	신월구역	이정순	부천구역	정여화	보문구역	한점례	역삼구역	최상일
목동구역	김선홍	방화구역	이진수	논현구역	이계현	광명구역	정영희	역삼구역	최규순
인천구역	유성일	독산구역	전재빈	역삼구역	최남녀	오류구역	박이희	역삼구역	남궁금수
상계구역	김현주	독산구역	조숙점	개포구역	이영조	창신구역	김은희	역삼구역	오병순
대치구역	최정민	대림구역	송진희	역삼구역	박연담	미아구역	강대석	역삼구역	최종희
대치구역	손성옥	도화구역	진승기	역삼구역	최윤희	중앙구역	류정순	서초구역	강정숙
개포구역	구영희	홍은구역	송영화	역삼구역	오경여	전남구역	김은숙	역삼구역	이희경
역삼구역	이기언	홍은구역	안창화	역삼구역	이진봉	임사구역	이결순	역삼구역	한상도
역삼구역	박영애	홍은구역	하경만	세곡구역	양희자	전호구역	최영순	개포구역	엄순애
역삼구역	정혜숙	방학구역	김규태	개포구역	최태희	잠실구역	이찬주	일원구역	이동철
역삼구역	신기순	월계구역	김종현	대치구역	김옥형	행당구역	이선영	개포구역	김기승
역삼구역	류재연	면목구역	송재동	상성구역	이순정	목수지점	권정순	대치구역	김종희
역삼구역	노명혜	삼전구역	노만식	논현구역	이재영	자양구역	이강미	노원구역	방미자
역삼구역	윤영남	잠실구역	김종호	논현구역	장남인	삼성구역	주성일	논현구역	유한옥
역삼구역	권장환	잠실구역	김도숙	논현구역	박복금	삼성구역	구순자	반포구역	정성숙
성남구역	윤옥선	잠실구역	김소침	안산구역	김경옥	삼성구역	오근영	봉천구역	조창선
도곡구역	박현규	잠실구역	김은침	안산구역	이희성	삼성구역	유효정	광명구역	이상원
도곡구역	최숙자	가락구역	김정숙	잠원구역	할옥자	역삼구역	문재희	구로구역	이광영
도곡구역	박종호	가락구역	조규선	신림구역	전현애	역삼구역	이영희	북가좌 ~	정진미
개포구역	이학주	가락구역	조한석	인천구역	염경숙	역삼구역	손연남	월계구역	김학창
개포구역	이은옥	가락구역	조혜전	부천구역	송영복	역삼구역	김애규	장위구역	임형중
삼성구역	성영창	가락구역	조혜옥	구로구역	성명옥	서초구역	이동성	신당구역	염승순
잠원구역	심상희	암사구역	이경순	구리구역	이방덕	도곡구역	김영희	자양구역	안태환
신림구역	권인숙	자양구역	김인자	시흥구역	정화희	서초구역	박근영	자양구역	방일옥
신림구역	장연춘	목창구역	임윤자	홍제구역	김정자	성남구역	김주성	회현구역	박미경
독산구역	김영성	구의구역	정미숙	불광구역	정승희	개포구역	박경용	광희구역	이천기
화곡구역	백봉은	역곡구역	김소현	동교구역	나석준	개포구역	이희자	역삼구역	백영자
고강구역	이영민	역삼구역	최형원	장전구역	송승걸	대치구역	홍혜정	역삼구역	김승호
고강구역	황순기	역삼구역	도장욱	서교구역	최시원	개포구역	조기태	역삼구역	김대일
고강구역	이대욱	역삼구역	김미향	방학구역	김현정	대치구역	김현영	역삼구역	최정자
고강구역	이대광	역삼구역	서승희	하계구역	황양래	논현구역	김필승	역삼구역	정소영
수유구역	이영진	역삼구역	서완석	방학구역	윤미숙	논현구역	이재용	역삼구역	엄미순
양주구역	윤창희	성남구역	유막내	면목구역	김지복	논현구역	유한옥	서초구역	김현관
회현구역	송숙경	도곡구역	박영태	상봉구역	김홍식	논현구역	박태숙	서초구역	조기형

부천구역	김소현	서초구역	이무강	중화구역	이승희	과전구역	강영순	개포구역	김희순
방산구역	정광준	대치구역	신자옥	고덕구역	김기홍외명	시흥구역	문봉자	일원구역	김숙현외명
방산구역	김해민	논현구역	박규삼	중곡구역	이봉춘	신림구역	최진무	논현구역	김민배
방산구역	정호영	논현구역	윤예정	구의구역	정경숙	봉천구역	조형선외명	잠원구역	천영호
오류구역	이영만	논현구역	곽노희	용답구역	이석홍	인천구역	조광익	방배구역	김현정
역삼구역	김광국	논현구역	박의석	율지로	주영진	독산구역	김해영	노량진	공희진
역삼구역	한정순	방배구역	이복순	필동구역	김용익외명	광명구역	황순자	신림구역	전미리
역삼구역	송석순	배운아	문성만	보광구역	채수경	광명구역	김성숙	신대방	임두진
세곡구역	장정희	철산구역	안양구역	구의구역	백희숙	창신구역	조성숙	신도림	이미숙
서초구역	오세중	시흥구역	양영신	역삼구역	박순남	창신구역	이종경	신흥구역	이풍유
학동구역	이영백	구로구역	차기록	역삼구역	김연숙	수색구역	윤창용	김포구역	전정구
논현구역	강성기	상계구역	임신실	역삼구역	양기애	미아구역	김경순외명	송인구역	박홍익외명
논현구역	양성실	종암구역	주미란	역삼구역	김영미	수유구역	윤태영	응암구역	김종훈
논현구역	임채윤	창동구역	이영실	역삼구역	김경래	신당구역	이민기	미아구역	강세자
논현구역	노대상	신당구역	김경희	역삼구역	홍효덕	신당구역	윤연옥	고덕구역	김도환외명
논현구역	이계현	답십리	임유순	서초구역	박정연	성내구역	전영아	구의구역	김용근
개포구역	서영숙	성내구역	유성열	성남구역	윤정자	삼성구역	유근종외명	역삼구역	채덕이

결혼

▲송석윤군(소사구역)과 김소현양(역곡구역) 10월 15일 12시

▲이은용군과 홍영신양(초등부교사) 10월 15일 오후 1시

▲김호필군(김성태, 전계설집사 아들)과 이경숙양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

▲이덕화군(이의석씨, 연경애성도 아들)과 노성주양 10월 18일 12시

▲이문환군(이상신씨 문명애권사 아들)과 민성혜양 10월 20일 오후 2시

▲변종원군(변태식씨 정정희집사 아들)과 박순옥양 10월 21일 오후 1시

▲권혁래군과 전희순양(노경순집사 딸) 10월 22일 12시

▲김부연군(거여구역)과 정문경양(정병익집사 딸)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

▲김효환군(김병준씨 김종희권사 아들)과 문봉자양 10월 22일 오후 2시

▲정인준군(이경순성도 아들)과 박

경숙양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

▲박종배군(김복련집사 아들)과 이혜순양 10월 25일 오후 1시

▲이기정군(이규선, 박신춘집사아들)과 정인자양 10월 29일 오후 1시

▲박병길군(한순원권사 아들)과 김명란양 10월 29일 오후 2시

▲오형근군(오태선목사 홍혜숙권사 아들)과 양혜영양 10월 29일 오후 3시

▲이경국군(이도일씨 정경자권사 아들)과 송보안양 11월 3일 12시 30분

▲박상연군(이명룡집사 아들)과 이진선양 11월 3일 오후 1시

▲임우도군/임봉남집사 김순복권사 아들)과 석태임양 11월 4일 오후 1시

▲김판규군(황광명집사 아들)과 김양숙양 11월 5일 12시

▲김순필군(김성수씨 함순려집사 아들)과 장미영양 11월 5일 오후 1시

▲이동기군(부천구역)과 김인옥양 11월 5일 오후 2시

▲조필원군(조영엽씨 양숙자권사 아들)과 서미숙양 11월 5일 오후 2시

▲권철순군(권명술씨 손일생권찰 아들)과 김신아양 11월 5일 오후 2시

▲김동철군(김계상씨 김순례권사 아들)과 최북희양 11월 5일 오후 3시

▲최종운군과 양미혜양(양남성씨딸) 11월 10일 12시 30분

▲김동언군(김백록씨 이남복권사 아들)과 김영란양(아멘 찬양대원) 11월 11일 오후 1시

▲정현철군(최봉숙권사 아들)과 장문희양(창동구역) 11월 12일 오후 1시

▲민경상군과 정연희양(정수길씨 서옥권사 딸 유년부 교사) 11월 12일 오후 1시

▲김영민군(자양구역 사랑부 교사)과 형선희(직전부회원) 11월 12일 오

별세

후 1 시

▲채동석군과 박명순양(한오례성도 딸 교회학교 교사) 11월 12일 오후 3 시

▲문득만군(우정자권찰 아들)과 박종복양 11월 13일 오후 1 시

▲박동옥군(박창수장로 원귀일권사 아들)과 김영희양(김동열집사 최정자권사 딸) 11월 14일 오후 1 시

▲양승복군과 오정희양(오세룡씨 김준자권사 딸) 11월 19일 12시

▲김태영군(김덕환집사 이춘일권사 아들)과 신명화양 11월 19일 오후 2 시

▲박수홍군(박근엽집사 유명자권찰 아들)과 김석연양 11월 19일 오후 4 시

▲박두환군(조원선성도 아들)과 김용순양 11월 26일 오후 1 시

▲안용환군(신영숙성도 아들)과 고팡민양 11월 26일 오후 1 시

▲임연수군(안순자권사 아들)과 강소영양 11월 26일 오후 1 시

▲한삼현군과 박애란양(안소현권사 딸) 11월 26일 오후 3 시

▲김주산군(김준호집사 김종남집사 아들)과 김옥덕양 11월 3 일 오후 1 시

▲변종식군과 이경륜양 12월 3 일 오후 3 시

▲최영일군과 오영하양(능동구역) 12월 6 일 오후 1 시

▲김광호군(백죽심권사 아들)과 허은희양 12월 10일 12시 30분

▲송재훈군(자양구역)과 성명옥양 12월 10 일 오후 2 시

▲한형석군이문자권사 아들)과 정진미양 12월 16 일 오전 11시 30분

▲김해근군(김승주 윤점선성도 아들)과 최명선양(이문3 구역) 12월 17 일 오후 2 시

▲김종산군(서복술권찰 아들)과 유종희양 12월 17일 오후 2 시

▲문영규군(이동애권사 아들)과 김영락 12월 17일 오후 3 시 30분

▲인광섭군(인한식성도 박복동집사 아들)과 최영관양 12월 19일 오후 1 시

▲궁재경군(김정연권사 아들)과 서숙진양 12월 20일 오후 1 시

▲정덕균군(채영숙성도 아들)과 박현옥양(박노태 씨 김양녀권찰 딸) 12월 23일 12시

▲정통권군과 박지연양(김정래권사 딸) 12월 24일 오후 3 시

▲김복순권사(역곡1구역 김동섭집사 모친) 10월 2 일 별세

▲박영수성도(방이구역 박창균성도 부친) 10월 3 일 별세

▲강지순장로(잠원5구역 강학채성도 부친) 10월 6 일 별세

▲김복달집사(봉천12구역 김기철집사 모친 안춘자성도 시모) 10월 6 일 별세

▲최남분권사(성산구역 이훈장로 장모) 10월 7 일 별세

▲고순이집사(전철우집사 시모) 10월 8 일 별세

▲이강애성도(선농구역 양진석성도 모친) 10월 11일 별세

▲송주호장로(오순탄권사 부군 송한섭집사 부친) 10월 12일 별세

▲김경득성도(이광국집사 모친) 10월 14일 별세

▲김경일성도(필동3-4 구역) 10월 16일 별세

▲강덕임권사(김동욱집사 모친 이애나 집사 시모) 10월 25일 별세

▲권태수성도(미도구역 송순자권사 부군) 10월 31일 별세

▲이성길성도(충무5구역 김경희집사 부군) 11월 22일 별세

11·12월의 행사

□ 교회행사

12월 17일 / 헌당기념 교구대항 찬양 경연 대회

12월 16일~19일 / 헌당 감사 특별 성회

12월 20일 / 헌당

□ 당회

11월 2일 / 10월 정기당회

11월 30일 / 11월 정기당회

12월 26일 / 12월 정기당회

□ 제직회

11월 6일 / 11월 정기제직회

12월 4일 / 12월 정기제직회

12월 28일 / 특별제직회

□ 예배위원회

11월 20일 / 추수 감사절

□ 교육위원회

11월 13일 / 고3을 위한 학부모 초청 기도회

11월 19일 / 시와 찬양의 밤(직전부)

12월 11일 / 성경연구원 수료식

12월 24일 / 코이노니아의 밤(고등부)

12월 27일 / 교회학교 교사 총회

□ 출판부

11월 20일 / 충현의 만나 12월호 발행

12월 24일 / 충현의 만나 1월호 발행

12월 31일 / 월간충현 발행

편

집

후

기

한해가 왔는가 했더니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양순한 양처럼 기도하며 순종하고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12월 20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새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당하였다.

이번 호에는 우리교회 35년 동안의 최대의 잔치였던 '헌당'을 특집으로 꾸며 감격스러웠던 그 날의 기쁨을 되새기고자 지면에 옮겼다.

지난 1년 동안 끊임없는 기도와 귀한 옥고로서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국내외에서 성탄 카드와 신년 연하장을 보내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본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8년 11·12월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8년 12월 28일 인쇄

1988년 12월 31일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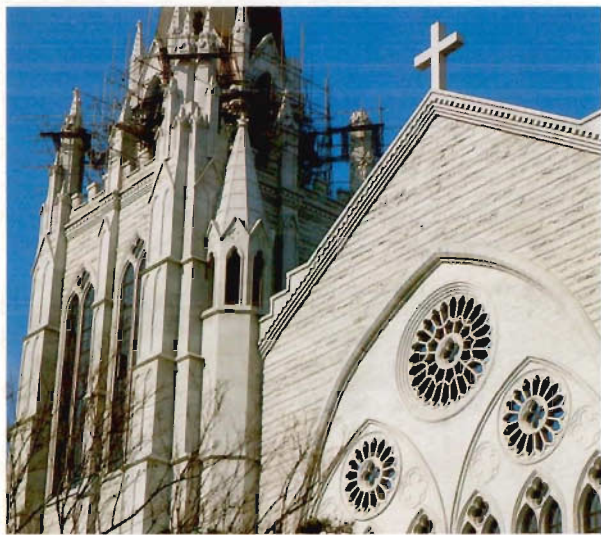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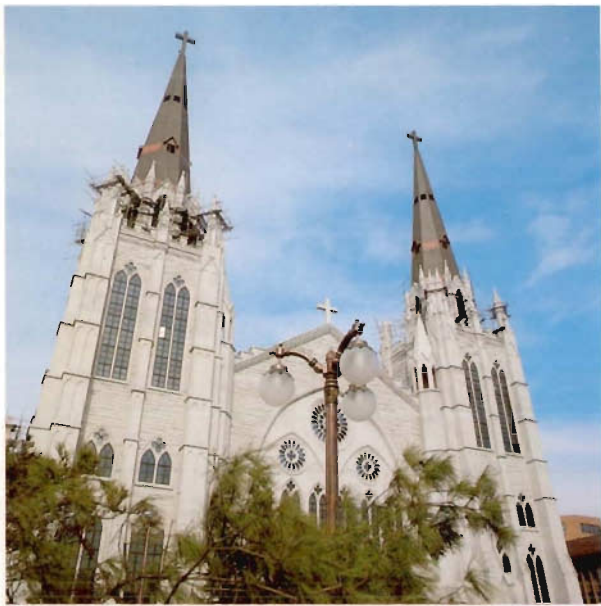
발행인/이 중 윤
편집인/송 환 창
주 간/조 선 근
편집위원/손 경 수
김 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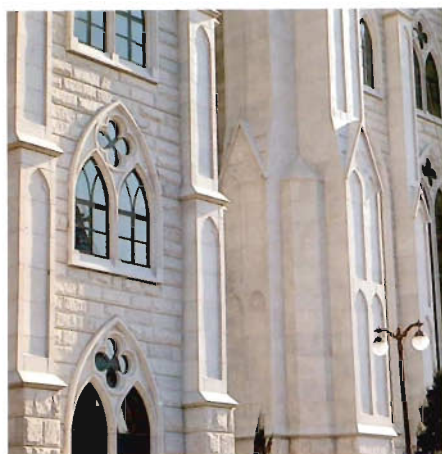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62-4181~5







십이월의 기도

이 복희

(집사 · 성가대원)

다시 올수없는 세월들이
저만큼
사라져 버린 지금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당신을 향해
충절로 가득찼던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시던 당신의 음성이
채찍되어 가슴을 치나이다
삶
전체를 당신께드린
선자를 향해
나는 너를 모르되
도무지
모른다 외면하시던

당신의 음성이
예리한 매스되어
심장을 가르나이다
허지만 주님./
세월의 모래밭에 텅굴며
또 한껏
당신을 부를때
나도 너를
정죄 하지않겠노라
속삭여 주시던 멀어를
기억하기에
지금
이순간이 아름답고
소중하기만 합니다

